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51호 【루계 제23468호】 주체100(2011)년 5월 31일 (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불세출의 령장 김정일동지를 모신 민족의 영광 만방에 빛내이자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갈 위인칭송의 보물고

지난 30년간 우리 인민과 해외동포, 외국인들 근 400만명 국제친선전람관 참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70(1981)년 5월 묘향산지구를 현지지도하신 때로부터 30년이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력사의 그 나날 묘향산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리도록 이끌어주신데 이어 국제친선전람관을 돌아보시고 귀중한 선물들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문제, 전람관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교양하는 거점으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뜻깊은 이날을 맞이한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흠모심을 안고 국제친선전람관을 끊임없이 찾고있다.

국제친선전람관은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세계 184개 나라의 당 및 국가수반들, 저명한 인사들, 해외동포들이 삼가 올린 22만 5 950여점의 진귀한 선물들이 보존되여있는 만민칭송의 보물고로, **김일성**민족의 자랑으로 높이 솟아 빛을 뿌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5만 9 361개 단체에 328만 4 395명의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전람관을 참관하였다.

또한 3만 117개 단체에 37만 1 362명의 외국인들과 5 675개 단체에 13만 6 083명의 해외동포들, 1 063개 단체에 2만 339명의 남조선인민들이 이곳을 참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실뿐아니라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백두산3대장군을 열렬히 칭송하여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올린 국보적인 선물들이 전시된 총서관과 서관을 비롯한 선물진렬방들을 돌아보면서 크나큰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백두산위인들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마음들을 읽으며 억년이 가도 변치 않는다는 수정구속에 어버이수령님의 해빛같은 영상을 정중히 모신 수정내화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오래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참관자들은 불세출의 위인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이 비낀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보고 또 보면서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상리론적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건강을 바라며 올린 대형건칠꽃병들과 위대한 장군님을 자주시대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마음이 뜨겁게 어리여있는 사기공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 옥돌공예 《백두산밀영고향집》, 여러가지 색갈의 옥돌과 진주로 세계지도를 형상하고 조선지도를 특별히 순금으로 형상한 돌공예 《조선은 세계의 중심》, 99마리의 나비들이 모두 평양을 향해 날아드는 모습을 형상한 나비공예 《조선지도》를 비롯한 한점한점의 선물들마다에는 절세위인들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내이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간절한 념원과 진실한 마음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하기에 국제친선전람관을 찾는 우리 인민들은 물론 대양과 대륙을 건너온 세계 5대륙의 진보적인민들은 한없는 부러움과 경탄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얼마전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진종흥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삼가 올린 선물들이 전시되여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고 그 한점한점의 선물들이야말로 그분들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흠모심의 분출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과 **김일성**주석께서 공동의 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속에서 마련하여주신 중조친선을 계속 빛내여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캄보쟈문화예술성 국무부비서 콩 칸타라는 전람관에 전시된 선물들은 **김일성**대원수각하께서와 **김정일**원수각하께서 지니신 높은 국제적권위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있다, 그분들께서 마련하시고 강화발전시켜주시는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의 뉴대는 영원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의 심정만이 아니다.

남조선의 한 인사는 국제친선전람관을 돌아보고 감상록에 조국을 알았습니다, 세계를 보았습니다, 부끄러운 삶 고백하고 자랑찬 삶 새겨봅니다, 통일조국에 내 한몸 할 일 굳은 맹세 다짐합니다라는 글을 남기였다.

참으로 위인칭송의 보물고인 국제친선전람관은 백두에서 개척된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완성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태양민족의 영광과 긍지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선군의 기치따라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가시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위인칭송의 보물고인 국제친선전람관은 앞으로도 **김일성**민족의 자랑으로 온 세계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윤명보

우리 당을 받드는 길이라면

◇ 얼마전 《로동신문》 1면에는 지난해와 올해에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자원진출한 소식이 실리였다. 상업성 아래단위 로동자 김정남동무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을 졸업한 정수림동무, 평양장원중학교와 평양강안중학교, 김형권군 수동중학교의 수많은 졸업생들…

나이와 성격, 취미, 고향은 서로 달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꼭같은 지향이 자리잡고있다. 그것은 바로 당이 바라고 조국이 부르는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서슴없이 달려나가는것이 공화국공민의 응당한 본분이라는것이다.

하기에 김정남동무는 농촌에 진출할것을 제의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농촌으로 가서 일할 결심을 이미전에 하지 못한 자신이 민망스럽기만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제 꼭 농사는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꽃피우는 대지의 밑거름, 농업전선의 억센 뿌리가 되겠습니다.》라고…

◇ 우리 인민은 당을 진심으로 받드는 훌륭한 인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참으로 훌륭한 인민입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사정이 몹시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우리 인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좋은 인민이라고, 우리 인민처럼 당과 수령에게 충직하고 의리심이 깊은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이런 훌륭한 인민을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마다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자기 수령, 자기 당에 대한 인민의 충정은 돈이나 재물, 강요로 얻을수 있는것이 아니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당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살 위대한 어머니품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 우리 당의 투쟁구호로 되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것이 천만군민의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되고있기에 조선로동당이 위대하고 우리 조국이 불패의 위력을 떨치고있는것이다.

◇ 위대한 당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이것이 우리 인민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오늘의 대고조진군은 우리 인민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이 최대로 분출되는 장엄한 투쟁이다. 우리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결사관철해나가야 한다. 누구나 깨끗한 량심과 의리를 지니고 당의 구상과 결심을 실천으로 빛내이며 강성대국의 대문에로 용감무쌍히 돌진해나가야 한다.

그 무엇으로써도 당을 받드는 우리 인민의 신념을 허물수 없다.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하늘땅이 열백번 꺼진다 해도 우리 인민은 끝까지 당을 따라 주체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걸어나갈것이다.

김철소식

5월 선철생산계획 빛나게 수행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진군의 앞장에서 공격속도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높이 세운 5월 선철생산계획을 빛나게 넘쳐 수행하였다.

올해에 들어와 달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해온 김철의 로동계급은 이번에 또다시 5월 선철생산전투를 빛나게 결속함으로써 력사적인 중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드릴수 있게 되였다.

김철로동계급이 련이어 올리는 승리의 개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민의 강행군자욱을 따라 생산돌격전을 과감히 벌리고있는 온 나라 로동계급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으며 김철에서 쏟아지는 쇠물폭포는 전반적인 민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철강재생산을 정상화하여야 나라의 경제가 풀릴수 있습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철강재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게 하는 전투적기치로 내세우고 당행정배합을 밀접히 하면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원단위소비기준을 결정적으로 낮추기 위한 된바람이 일어나고 전반적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는 속에 김철로동계급은 생산돌격전에서 애국열의를 남김없이 분출시키였다.

용광로직장에서는 행정경제사업의 정치화를 철저히 실현하여 로동자들의 생산의욕을 부단히 높이는 한편 공정간, 교대간 협동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로조작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쇠물생산량을 부쩍 늘이였다.

생산의 앞공정을 담당한 단위들에서 용광로에 원료, 부원료를 충분히 대주기 위한 혁신의 불바람이 일어났다.

관수송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형압송뽐프들을 비롯한 설비관리에 모를 박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인 대책들을 세우는 한편 정광수송관보수공사를 예견성있게 벌려 계획보다 훨씬 많은 량의 정광을 수송보장하였다.

정광공급1, 2직장과 소결부문의 전투원들도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여 품위높은 소결광을 용광로에 넉넉히 대주었다.

수송부문의 로동계급과 자재보장부문의 일군들도 생산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긴장한 전투를 벌려 요구되는 물동들과 자재, 부속품들을 제때에 신속히 보장하였다.

지금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외국방문의 먼길에 쌓인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희천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에 접하여 더욱 분발하여 일떠섰다.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때, 김철의 실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서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는 련합기업소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북방의 대야금기지에는 대고조진군의 발구름소리가 더 힘차게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우리 식의 지열수리용방법 완성

함경남도탐사관리국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온천, 지하수, 지열탐사를 적극 벌려 지하수와 지열자원을 다 찾아내여 종합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함경남도탐사관리국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우리 나라의 모든 지역에서 지열수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방법을 완성하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첨단지열설비생산의 힘찬 포성이 울린데 이어 함경남도탐사관리국에서 우리 식의 지열수리용방법을 완성한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또 하나의 귀중한 성과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밝혀주신 지열수리용의 휘황한 설계도를 받아안은 국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지열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하루빨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는데서 자기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탐사기술정보쎈터 책임연구실장 김철석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우리 나라의 임의의 지역, 지대에서 지열수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지열수리용에서 기본을 이루는 합리적인 열추출방법을 확정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이 과정에 우리 나라의 임의의 지역에서 지하수매장량에 관계없이 지열을 합리적으로 추출할수 있는 방법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였다.

열뽐프를 리용한 지열랭난방체계에서 기본은 대상의 특성에 맞게 지하에서 추출할 열량과 그 추출방법을 정확히 선정하는것이다.

국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지열랭난방체계의 도입에 앞서 주어진 대상에 가장 알맞는 지열추출체계를 콤퓨터에서 신속정확히 설계할수 있는 지하열교환기설계프로그람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였다. 이로 하여 지열수리용체계의 설계작업을 고도로 과학화하고 원가를 훨씬 줄일수 있게 되였다.

지금 관리국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새로 완성한 우리 식의 지열수리용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여러 단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이 지열수를 리용하기 위한 첨단설비들을 제작해낸데 이어 함경남도탐사관리국에서 이룩된 이 성과는 지열수리용의 더욱 밝은 전망을 열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충성

대화학기지에 세차게 타번지는 증산의 불길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나라의 위력한 화학제품생산기지인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의 경제토대에 의거하여 우리 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이곳 련합기업소에서는 비날론띠섬유와 련조끄치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있으며 가성소다와 염산, 초산, 초산비닐, 염화비닐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이 짱짱 쏟아져나오고있다. 특히 카바이드생산에서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으며 사회주의농촌에 보내줄 농약생산도 날로 늘어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고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가지 화학제품들이 짱짱 생산되고있다는 소식은 우리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지난 1월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날론띠섬유와 견절사, 련조끄치가 쏟아져나오고있는것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기업소에서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과 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과 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책임일군을 비롯한 당위원회 일군들은 대중을 생산돌격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있다.

기업소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생산현장에 깊이 들어가 로동자, 기술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걸린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고있다. 특히 원료, 연료, 자재보장문제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틀어쥐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통이 크게 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공정간 맞물림을 밀접히 하고 현행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당기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제때에 풀어나가고있다.

비날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생산의 첫 공정을 담당한 원료직장과 카바이드1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석회로와 카바이드전기로보수와 운영을 잘하여 원료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카바이드1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로관리, 설비관리를 깐지게 하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요즘 카바이드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비날론생산의 중간공정들을 맡아나선 아세틸렌직장과 합성직장, 중합직장과 방사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공정간 련계를 밀접히 하고 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면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그들은 매 공정별에 따르는 합리적인 운전조건을 확립함으로써 비날론의 질을 훨씬 높이고있다. 중합직장의 중합작업반, 검화작업반, 방사직장의 원액작업반 로동자들은 질좋은 원료를 생산보장하는데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여러차례 모시고 기쁨을 드린 영광을 안고 수직방사직장과 견절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요즘 비날론띠섬유와 견절사, 련조끄치생산에서 눈부신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수직방사직장의 직장장, 책임기사를 비롯한 일군들과 원액, 방사, 반응, 수리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깐지게 하여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함으로써 질좋은 비날론띠섬유를 짱짱 생산해내고있다.

견절직장의 일군들과 련조작업반, 견절사작업반의 로동자들은 기대마다 만가동을 보장하여 매일 1.2배이상의 실적을 올리고있다. 증기직장과 공무, 동력부문, 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가성소다직장과 염화비닐직장, 농약직장에서도 가성소다와 염화비닐, 농약을 비롯한 화학제품생산에서 매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한마음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대화학기지에서는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고 날마다, 시간마다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민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농사를 잘 짓는것이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며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생산에 자각적으로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새겨진 재령군 삼지강, 안악군 룡산, 경지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두벌농사면적을 제외한 전체 면적의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다른 협동농장을 도와나섰다. 이것은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해내려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집단주의정신의 높은 발현이다.

올해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모내기전투에 들어선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두벌농사면적을 제외한 전체 면적의 모내기를 짧은 기간에 해내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모내기전기간 농장일군들은 올해농사의 성과여부가 자기들의 역할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해나갔다. 작업반, 분조들에 나간 일군들은 당면한 모내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였다.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면한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해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분조관리제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여 알곡생산을 늘이는것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드높은 결의로 가슴을 끓이며 떨쳐나선 농장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모내기전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갔다. 그 나날에 삼지강, 경지협동농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는 농장원호상간, 분조호상간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차넘치였다. 룡산협동농장에서도 작업반, 분조들에서 발휘되는 집단주의기풍을 제때에 일반화하여 온 농장에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농장들에서는 모내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온 나라 모든 농장포전에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애국의 열정에 넘쳐 다른 농장의 모내기를 도와나섰다.

다른 농장에 달려나간 이들은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모내기실적을 올리고있다.

특파기자

고상한 집단주의정신의 발현

재령군 삼지강, 안악군 룡산, 경지협동농장에서 다른 농장의 모내기를 지원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고있다. —봉산군 지탑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정영철 찍음

필승의 신념과 의지로 수놓아진 고결한 생애

리보익녀사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신념과 의지로 하는것이 혁명이다.

신념과 의지가 굳세지 못하면 온갖 풍파를 헤치며 나가야 하는 혁명을 할수 없다.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언제나 백승의 한길로 줄달음쳐온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자랑찬 력사가 이것을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얼마나 많은 선렬들이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간고하고도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불멸의 위훈으로 아로새겨왔던가.

조국과 인민의 추억속에 영생하는 열렬한 애국자, 참된 혁명가들의 전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할머님이신 리보익녀사의 숭고한 모습도 있다.

험난한 세월의 풍파속에서 만경대가문의 애국의 가풍을 굳세게 지켜오시며 혁명가의 어머니, 혁명가의 할머니로서의 고결한 생애를 빛내이신 리보익녀사,

리보익녀사의 탄생기념일을 맞으며 천만군민이 녀사의 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는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굳세게 살아오신 그이의 한생에 애국, 애족, 애민의 넋이 빛발치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할머니의 특징은 한마디로 강의한 늙은이라고 표현할수 있을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나이의 녀성들치고 보기 드문 강자였습니다.》

리보익녀사는 1876년 5월 31일 평안남도 평양부 청룡면 대오류동(오늘의 평양시 사동구역 오류리)의 가난한 농가에서 탄생하시였다.

리보익녀사께서는 이 나라의 평범한 녀성이였지만 남달리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시였다. 하기에 그이의 한생은 가정보다 먼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열렬한 애국자의 한생으로 빛나고있다.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그 세월 도탄에 빠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제분들과 손자분들을 혁명의 길에 내세운다는것은 결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였다.

한가정을 돌보자고 해도 힘들었던 당시로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하지만 녀사께서는 자손들을 모두 혁명의 길에 서슴없이 내세우시였다.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자신보다 먼저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열렬한 애국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용단을 내릴수 있겠는가.

자손들에 대한 리보익녀사의 사랑은 극진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사랑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자손들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참된 혁명가로 키우는 뜨거운 정이였고 손길이였다.

녀사께서는 언제나 자제분들에게 대가 바르고 굳세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아드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부터는 나라를 찾는 큰일을 하자면 마음을 크게 먹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아드님의 혁명투쟁을 적극 도와나서시였다.

녀사께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실 때에도,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시여 철창속에서 불굴의 투쟁을 벌리실 때에도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뒤바라지를 고스란히 해오시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무송에 오신 리보익녀사께서 우리 수령님께 하신 말씀은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증손아, 이제는 아버지가 메고 있던 짐을 네가 메야겠구나. 너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기어이 나라를 찾아야 한다. 나나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해도 좋으니 조선을 독립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할머님의 그 말씀에서 큰 충동을 받으시였고 커다란 힘을 얻으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일 그때 할머니가 조선독립이 아니라 앞으로 부자가 되거나 출세를 할 생각이나 하라고 하였더라면 자신께서는 그다지 큰 감동을 받지 못했을것이라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리보익녀사께서는 가난하고 불행하고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그지없이 상냥하고 부드러웠지만 혁명의 원쑤들에게는 추상같이 무서웠으며 그 어떤 강권이나 불의앞에서도 휘여들지 않는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이시였다.

리보익녀사께서 《혜산사건》이후 일제의 악랄한 《귀순공작》에 의해 만주산야에서 별의별 고생을 다 겪으시면서도 절개와 지조를 굽히지 않으신것은 그렇듯 강의하고 견결한 혁명정신을 지니고계시였기때문이다.

그때 말이나 돈으로는 만경대집안 사람들을 《귀순공작》에 움직일수 없다는것을 알게 된 적들은 총칼로 리보익녀사를 끌어내여 만주로 데리고 떠났다. 그렇게 되자 녀사께서는 좋다, 너희들이 억지로 날 데리고가겠거든 가자, 그렇다고 너희들을 도와줄줄 아느냐, 그대신 나는 나대로 이 기회에 손자가 싸우고있는 백두산과 만주의 산천이나 실컷 돌아보겠으니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일제의 강요로 다시 만주땅을 밟으시였을 때에도 리보익녀사께서는 항일유격대가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들으실 때면 《내 손자가 장하다! 어서 왜놈들을 다 잡아치우고 우리 나라 땅에서 왜놈들의 씨를 말려라!》라고 기세를 올리군 하시였다.

녀사께서 남기신 고생의 흔적은 오늘도 만주의 산야에 점점이 찍혀있다.

일제의 폭압이 절정에 달하였던 그 시기 늙으신 몸으로 혁명가의 할머니로서의 존엄과 지조를 지킨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회고하신것처럼 리보익녀사는 직업적인 혁명가가 아니였다.

학교를 다니신적도 없었고 조직적인 교양을 받으신 일도 없다.

하지만 리보익녀사께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계시였기에 원쑤들의 그 어떤 박해와 고초, 모진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적들과 그처럼 당당히 맞설수 있었으며 마침내 해방의 날을 맞으실수 있었던것이다.

해방후 만경대고향집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부둥켜안으시고 아버지, 어머니는 어데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 같이 오면 못쓴다더냐라고 하시며 눈물지으시던 리보익녀사,

끝끝하던 자손들이 조국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한줌 흙이 되여 낯설은 이국땅에 묻히였으니 리보익녀사의 심정이 어찌 쓰리고 아프지 않으시였으랴.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20년만에 고향집에 오면서도 할아버지, 할머니앞에 빈손으로 왔다고 말씀드리자 녀사께서는 왜 빈손이란 말이냐, 독립이 얼마나 큰 선물이냐! 네가 성한 몸으로 해방을 안고왔으니 나는 그이상 더 바랄게 없다, 네가 크고 해방이 크지 세상에 더 큰게 뭣이 있겠니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렇듯 녀사께서는 쓰라린 아픔, 겪으신 고생은 한가슴에 다 묻어두시고 나라의 해방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크고 귀중한것으로 여기신 열렬한 애국자이시였다.

리보익녀사는 생의 전기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한평생을 기다리며 사시였다. 해방전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아오실 독립의 날을 기다리시였고 해방후에는 수령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오실 날을 기다리시였으며 그후에는 만민이 잘사는 날과 조국이 통일되는 날을 기다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당과 국가건설이 끝나면 할아버님과 할머님을 평양에 데려다 모시려고 하시였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손들의 덕으로 호강하는것을 바라지 않으시였다. 어디까지나 수수한 평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시였다. 그래서 생의 말년까지 농사일을 계속하시였다.

《일거리가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니라.》 이것이 리보익녀사의 소박한 인생철학이기도 하였다. 녀사께서는 간혹 손자분께서 살림에 보탬을 주시려고 하면 자기 걱정을 안해도 되니 백성들걱정이나 하라고 사양하군 하시였다.

그 어떤 특혜특전을 바람이 없이 끝없는 헌신과 열렬한 애국의 넋으로 심장을 불태우신 리보익녀사의 한평생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끝없는 헌신성은 곧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가정을 위하는 길이며 자기 수령, 자기 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만 있으면 두려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뜨겁게 새겨주고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리보익녀사의 고귀한 뜻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으로 빛내이시고 가꾸어가시는 사회주의 내 조국땅우에 더욱 찬란히 꽃펴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만경대가문이 걸어온 성스러운 혁명의 길, 애국의 길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그 길우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혁명정신을 끝까지 이어갈것이다.

본사기자 정순학

농촌지원자들과 함께 모를 내시며

모내기전투로 들끓는 사회주의협동벌 그 어디에나 혁신의 기상이 나래친다.

드넓은 농장벌마다에서 모내기로 일손을 다그치는 농업근로자들, 기계화의 동음울리며 푸른 주단을 펼쳐가는 모내는기계들, 규격화된 포전으로 쉬임없이 오고가는 뜨락또르들…

이 벅찬 현실을 대할 때면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모내기전투로 들끓는 협동벌을 찾으시여 손수 모를 꽂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이 뜨겁게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인민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훌륭한 풍모를 다 갖추고있습니다.》

주체60(1971)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력사의 땅 청산리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그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청산벌은 모내기전투로 들끓고있었다.

농장벌 그 어디에나 붉은기가 세차게 휘날리고 전투속보판들마다에는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의 혁신적성과들이 큼직큼직하게 나붙어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험한 논두렁길을 걸으시며 속보판의 내용도 보아주시고 농촌기계화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 농장에 지원나온 예술인들이 모내기를 하고있는 논판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예술인들은 저저마다 달려나오며 경애하는 장군님께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잘 있었는가, 앓지는 않았는가, 일은 힘들지 않는가고 물으시며 그들을 다정히 반겨맞아주시였다.

뜻밖에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내기전투로 들끓는 농장벌에서 뵈옵게 된 예술인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였다.

그런데 한 녀성예술인만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있었다.

얼굴에 흙탕물이 튕겨져있었기때문이였다.

그의 마음을 헤아리신듯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분장을 한 동무들을 보러 온것이 아니라 일하는 동무들이 보고싶어서 왔다고 하시면서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몸소 신발을 벗고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시더니 논판으로 성큼성큼 들어서시는것이였다.

순간 일군들과 지원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아니,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논판에 몸소 들어서시다니?!)

그이의 모습을 우러르며 모두가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자신도 모내기전투장에 나왔으니 모를 좀 꽂아보자고 하시면서 손수 모춤을 잡으시는것이였다.

그러시고는 허리를 굽히시고 능숙한 솜씨로 재빠르게 모를 꽂아나가시였다.

평범한 지원자가 되시여 농장벌에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과 지원자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이젠 그만 일손을 놓으시였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손에 쥐였던 모춤이야 어떻게 도로 놓겠는가고 하시며 계속 모를 꽂아나가시였다.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모습은 해방의 기쁨이 차넘치던 조국땅에서 농민들과 허물없이 모를 내시며 부강조국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던 어버이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모습그대로이시였다.

이 나라 농장벌을 찾고찾으시며 농민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들의 농사일도 도와주시면서 농업발전의 길에 새기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을 길이 전하며 내 조국의 협동벌들은 더욱 푸르러가고있다.

본사기자 강철남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아래 조국의 한치의 땅도 피로써 지켜싸워 승리한 인민군 용사들의 투쟁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조선혁명박물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리명박역적패당과 더이상 상종하지 않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

민족공동의 전취물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파기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한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은 집권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악랄해지고있다.

요즘에는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른다고 우리 혁명의 수뇌부와 우리의 신성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비난도수를 계속 높이면서 못된짓만 골라가며 하고있다.

원래 없는것을 날조해내고 악정은 미화하며 그것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파괴하고 평화번영의 길에 인위적인 장벽을 쌓고있는것이 다름아닌 리명박역적패당이다.

지금도 감히 그 누구의 핵포기와 당치 않는 《사과》에 대해 입버릇처럼 줴치면서 《베를린제안》의 그 무슨 《진의》에 대하여 주제넘게 떠들고있으며 날조된 사건과 정정당당한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걸고 북남관계를 수습할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다.

지어 전제조건없이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우리의 아량있는 제안에 대하여 악담질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 저들이 바라는 《급변사태》가 올것처럼 내외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얼마전 일본에 건너간 리명박역도는 또다시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 주제넘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서울에 돌아가서는 감히 그 누구를 《애정》을 가지고 어쩌보겠다는 희떠운 소리까지 줴쳐대고있다.

이런 속에서 괴뢰군부호전광들은 지난 5월 23일부터 경기도 양주와 인천시의 화약내풍기는 사격장에 숱한 괴뢰군을 내몰아 총포탄을 마구 쏘아대는 광기를 부리고있다.

한편 남조선의 반공화국보수세력은 전두환군부파쑈광신자들에 의해 감행된 5.18광주대학살만행까지 《북 특수부대의 소행》이였다고 국제무대에 들고다니는 추태를 부렸다.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극한점에 이르고있는 이 시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1. 우리 군대와 인민은 리명박역적패당과는 더이상 상종하지 않을것이다.

역적패당은 이미 동족으로 살기를 그만둔지 오랜 반공화국대결광신자들의 무리이며 정치도 군사도 모르는 무지의 깡패집단이다.

제나름의 판단대로 스스로 망할 때까지 그 무슨 《원칙론》을 고수하며 《기다림전략》에 따라 《급변사태》를 실컷 기다려보라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시간이 급한것은 우리가 아니라 역적패당일것이다.

2. **리명박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공세는 무자비한 공세이다.

그것은 또한 해내외 온 민족이 떨쳐나서게 될 공세로서 역적패당이 정치무대에서 매장될 때까지 계속될것이다.

대세는 진정한 민주화의 폭풍이 역적패당의 본거지에서 일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게 될것이다.

3.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면하여 역적패당의 대결소동에 맞서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들을 취하게 될것이다.

역적패당이 대화와 접촉을 거부하고 화해와 협력에 차단봉을 내린 이상 우리 군대는 1차적으로 북남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유지하여온 동해지구 북남군부통신을 차단하고 금강산지구의 통신련락소를 폐쇄하게 될것이다.

어리석은 기대를 가지고 계속 매달리고있는 역적패당의 반공화국심리전에 대하여서는 이미 경고한대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을 목표로 불의적인 물리적대응을 따라세우게 될것이다.

리명박역적패당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사태로 몰아넣은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민족앞에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100(2011)년 5월 30일
평양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에 영원불멸할 고귀한 업적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을 발표하신 2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주체75(1986)년 5월 31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김일성**조선의 100년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의 승리의 력사가 집대성된 기념비적문헌이며 선군시대 당건설위업수행의 전행정에서 일관성있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지금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투쟁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와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주체의 혁명적당을 창건하고 령도하여오시면서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창시하고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으며 당건설에서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였다.》

《ㅌ.ㄷ》에 억센 뿌리를 두고 승승장구하여온 우리 당건설의 력사는 **김일성**조선의 100년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이 성스러운 력사와 수령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다.

지난해에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 서문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라는것이 뚜렷이 명시되여있다. 여기에는 우리 당을 창건하시고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대불변의 신념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사상과 업적은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에 집대성되여있다. 로작에는 자주시대 혁명적당을 창건하는 문제로부터 당건설의 근본원리와 원칙, 당의 사상건설, 조직건설, 령도예술건설문제 등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완벽하게 밝혀져있다. 백수십년에 달하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로작과 같이 백과전서적이고 과학적이며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있는 당건설의 강령적문헌은 없다. 주체의 혁명적당건설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은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건설업적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우리 당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건설하신것이다.

당의 지도사상은 당의 성격과 투쟁목적,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방향을 규정하며 당의 전투력과 위력을 좌우한다. 위대한 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전진하는 당만이 가장 위력한 당으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새로운 혁명적당을 건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제시하신 자주성의 원칙은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원칙으로 되였으며 수령님께서 키우신 주체형의 열혈혁명가들은 우리 당창건의 골간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십성상 가장 공고한 조직사상적기초를 가진 강유력한 당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향도하는 불패의 당으로 위용떨쳐왔다. 그것은 우리 당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해온 빛나는 결실이다.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은 력사와 현실이 뚜렷이 확증하고있다. 지난 세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집권당들이 련이어 붕괴될 때에도 우리 당은 끄떡없었다. 이것은 사대와 교조를 배격하고 자주와 창조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 당의 지도사상, 주체사상의 위대성에 대한 증시로 된다. 새 세기에도 조선로동당이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존엄떨치고있는 근본비결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있는데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주체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백승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 선군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향도적력량이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건설업적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을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밝혀주신것처럼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야 백전백승하는 불패의 당으로 될수 있다.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며 광범한 대중에 의거하여 활동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이다.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만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떨치며 끊임없이 강화발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대중적당건설에 관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광범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당창건을 위한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다지시였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기층당조직부터 내오시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창건된 우리 당의 기발에 마치와 낫과 붓을 함께 새겨넣도록 하시였다. 당의 붉은 기폭에 빛나는 마치와 낫과 붓은 우리 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을 뚜렷이 상징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을 당건설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왔다. 우리 당은 혁명령도의 전기간 모든 로선과 정책에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정확히 반영하였고 당활동에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왔다. 우리 당을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는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고있다.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펼치고 전체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들고 당의 사상과 위업을 한몸바쳐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다. 여기에 우리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이 있으며 우리 당이 백전백승하는 비결이 있다.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정세속에서도 우리 당과 인민의 통일단결이 더욱 공고해지고있는것은 수십성상 우리 당의 대중적지반을 철통같이 다져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당건설업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당과 수령님의 후손들인 우리 인민은 영원한 혼연일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건설업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우리 당을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확고히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도록 전망성있게 건설하신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당의 령도밑에 대를 이어 계속되는 력사적인 위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혁명적성격과 면모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영예로운 사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가자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하여야 한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지 못하면 혁명의 대가 끊어지고 수령의 사상과 업적, 혁명전통이 말살되며 수령의 위업, 당의 위업을 망쳐먹는다는것이 력사에 새겨진 심각한 교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을 뿐아니라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당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닦으시였다. 먼앞날까지 내다보시며 우리 당과 혁명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령도체계를 튼튼히 마련하여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가장 큰 업적이다.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두철미 어버이수령님식대로 풀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확고히 견지하고계시는 혁명령도방식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선군사상으로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더욱 발전풍부화하시고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최상의 수준에 끌어올리시여 우리 당을 선군시대를 이끄는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드팀없는 신념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이 굳건히 고수되고 수령님의 유훈은 추호도 어길수 없는 당의 강령으로 철저히 관철되고있다. **김일성**조선의 100년사가 당의 령도밑에 굳건히 이어지고 강성대국건설의 힘찬 대진군속에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는것이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뜨겁게 절감하고있다.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것은 우리 당을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다함없는 신뢰심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주체형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당건설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어버이수령님의 당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울것이다.

리철

당조직들은 농촌지원사업에 정치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자

당의 전투적호소를 앞장에서 받들도록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체 인민이 현시기 식량문제해결이 가지는 의의를 똑똑히 알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농촌을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5월 24일현재 모내기를 돕기 위하여 농촌에 나간 로동자, 사무원수는 지난해보다 수십만명이 더 많다.

사기충천한 전투대오

5월 11일 당보에 사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자》가 실리자마자 모든 성, 중앙기관들에서 모내기전투에 동원될 인원선발사업이 시작되였다.

대오편성은 인민군대식이였다.

당, 행정일군들이 책임자로 임명되였다. 부, 처들에서 책임성있는 정무원들이 선발되였다.

정치사업이 진행되였다. 모내기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한 해설담화가 성, 중앙기관들에서 일제히 진행되였다. 주체농법과 최신농업과학기술에 대한 학습도 진행되였다. 나라의 농업발전에 쌓으신 백두산위인들의 업적을 새겨주기 위한 사업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어졌다.

지원자대렬은 계속 늘어나고있다.

올해 기어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체 인민의 열의는 대단하다.

그 앞장에 성, 중앙기관 정무원들이 서있다.

해당 당조직들에서 농촌에 모든 력량을 총집중, 총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수매량정성에서는 량정부문에 남기신 어버이수령님의 덕성 이야기모임이 진행되였다.

화학공업성에서 진행된 모임에서는 얼마전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어버이장군님을 몸가까이에서 모시는 영광을 지닌 책임일군이 출연하였다.

수산성, 원유공업성, 국토환경보호성, 잠업비단지도국, 은하지도국,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등 많은 성, 중앙기관들에서 당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해결의 절박성과 중요성을 해설하는 집중적인 선전사업이 진행되였다.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의 당사상선전사업은 모내기전투를 앞둔 정무원들의 열의를 한층 높여주었다.

지난 15일 모내기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성, 중앙기관 정무원들이 협동벌로 달려나갔다. 국가과학원, 체육성, 기계공업성에서 수백명의 전투원들이 농장벌로 진출했다. 여기저기서 사기가 충천한 전투대오들이 평양을 출발하였다.

다음날인 16일 모내기전투에 착수한 정무원은 1만여명에 달했다.

나를 따라 앞으로!

당조직들의 정치사업은 포전에서 더욱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경제선동의 북소리, 힘있는 선동연설, 정신이 번쩍 드는 크고작은 직관물들, 대중의 앞장에서 돌격구령을 치는 당책임일군들의 열정에 넘친 모습…

모내기전투장 그 어디서나 이런 모습을 볼수 있다.

외교단사업국 당조직에서는 기동예술선동대를 모내기전투현장에 파견하였다.

외국문출판사 당조직에서는 혁신자들의 사진을 찍어주면서 그들을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당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이 위력한 정치사업으로 되고있다.

곡산군 률리협동농장에 나간 수매량정성 초급당일군은 종일 포전을 타고앉아 농장원들, 지원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은률군 삼리에 나간 체육과학원 초급당일군은 첫날부터 종업원들과 함께 점심밥을 싸들고 전투에 참가하여 매일 200%의 실적을 올리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교육위원회,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채취기계공업지도국, 기상수문국, 인민대학습당의 당책임일군들도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전투원들을 이끌고있다.

당조직들의 세심하고 따뜻한 사랑은 대중의 정신력을 무섭게 폭발시키고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건설건재공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에서 인민군대후방가족, 영예군인, 혁신자들의 가정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이에 고무된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모내기전투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한마음, 한뜻

농촌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성, 중앙기관들에서 농촌지원사업은 정초부터 시작되였다.

올해 성, 중앙기관들에서 실어내간 도시거름은 3만여t이다.

농촌지원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사설의 호소를 받아안은 정초부터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은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륙해운성 당조직이 농촌지원에서 앞장서고있다.

성에서는 도시거름운반을 제일먼저, 제일 많이 하였으며 담당한 협동농장을 자주 찾아가 영농공정별로 농사준비상태를 알아보고 대책해주었다. 현재 모내기전투기간에도 농장을 크게 도와주고있다.

대외문화련락위원회 당조직에서 몇해째 순안구역 택암협동농장을 잘 도와주고있다. 올해에도 년초부터 농장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농사차비에 필요한 많은 영농자재들을 보내주었다.

체신성, 철도성, 무역성, 식료일용공업성, 사회과학원, 출판지도국, 락원지도국, 국제문제연구소, 농업출판사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의 모든 당조직들이 농촌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지원하고있다.

농촌에 모든 력량을 총집중, 총동원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당면한 모내기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성,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은 온 나라에 농사중시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림현숙

농사를 함께 책임지는 립장

◇모든 력량을 총집중, 총동원하여 올해농사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은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마음이 농업전선으로 달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농촌지원전투가 시작된 첫날에만 하여도 성, 중앙기관의 정무원들과 기관, 기업소의 사무원, 로동자들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수많은 지원자들이 협동농장들에 달려나갔다.

현지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농업성의 한 책임일군은 자기의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올해 농촌지원전투에 떨쳐나선 지원자들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그럴수록 농업부문에서 일하는 책임일군으로서 어깨가 무거워진다.》

온 나라에 타번지고있는 농촌지원열풍, 그것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를 결사관철할 의지안고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애국열의가 얼마나 높은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농사는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를 잘 지어야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으며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습니다.》

쌀이자 사회주의이고 강성대국이다. 쌀을 많이 생산하여야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할수 있으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하루빨리 열어제낄수 있다.

농촌지원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날 진정한 애국자는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사람, 농사를 중시하고 한알의 낟알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사람이다.

모내기는 시간을 다투고 품이 많이 드는 중요한 영농공정이다. 그런것만큼 하루라도 늦추면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일수 없고 그렇게 되면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울수 없다.

모든 지원자들이 올해농사를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농촌지원사업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설 때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조직들은 농촌지원이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려는 당의 의도를 결사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여기에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여야 한다.

농촌지원전투에서는 성, 중앙기관들이 앞장서야 한다.

성, 중앙기관과 도, 시,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모든 지원자들이 올해농사를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립장에서 주인답게 해나가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선전선동사업을 화선식으로 드세게 벌려 온 나라가 농사분위기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농촌지원사업에서는 일군들이 앞장서야 한다.

성, 중앙기관과 도, 시, 군당위원회, 기관, 기업소의 당 및 행정경제일군들은 인민군대 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힘찬 구령을 치면서, 새벽이슬을 먼저 맞고 밭이랑을 먼저 타면서 대중을 영농전투에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농촌지원자들을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조직하여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도, 시, 군당위원회일군들과 협동농장의 일군들은 영농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면서 농촌지원자들에게 보다 좋은 작업조건,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농촌지원자들은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라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고 농촌지원전투에 애국의 구슬땀을 다 바쳐나감으로써 올해를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키는 해로 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지원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켜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전국가적힘을 집중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당위원회에서 농촌을 로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지금 도적으로 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협동벌로 달려나가 당면한 모내기전투에 애국의 땀, 헌신의 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에 대한 로력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 정초부터 농촌에 대한 물질기술적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도당위원회에서는 바쁜 농사철에 맞게 로력지원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기 위한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들과 시, 군의 일군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지원자들을 모내기전투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도당위원회일군들이 모든 시, 군들에 내려가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며 나라의 쌀독이 차넘쳐야 인민생활이 안정향상될수 있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이 활력있게 전진할수 있다는 내용의 강연, 해설담화, 선동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의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또한 시, 군들의 로력지원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단위들의 생산활성화도 놓치지 않으면서 농촌지원로력조직을 립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짜고들어 누구나 다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촌지원에 주인답게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특히 사리원시, 은파군 등 도의 알곡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단위들과 우리 당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에 의하여 옥토로 전변된 미루벌지구의 협동농장들에 지원로력을 집중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온 도가 농촌지원으로 법석 끓게 하기 위한 분위기조성사업도 박력있게 내밀고있다.

도소재지와 시, 군의 곳곳마다에 농촌지원에로 호소하는 전투적인 구호들을 써붙이는 한편 모든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집중하여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림으로써 농촌지원전투장 어느곳에서나 위훈에로 부르는 돌격나팔소리가 우렁차게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로력지원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 한편 농촌지원자들이 농장원들과 농사를 함께 책임졌다는 립장에서 모든 영농작업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깐지게 해나가게 하고있다. 그리하여 누구나 모를 한대 꽂고 김을 한번 매도 깨끗한 량심을 바치고 온갖 정성을 기울이며 농작물을 애지중지 가꾸는 대고조시대의 참된 애국자로 살며 투쟁하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신평, 상원, 곡산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도안의 모든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도 올해농사에서 대혁신을 일으켜 식량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침투시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농업전선이 인민생활향상의 최전선이라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농촌지원전투에 떨쳐나선 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애국적열의에 떠받들려 지금 협동농장들에서는 모든 영농공정들이 일정계획보다 앞서나가고있으며 현재 도적인 모내기전투 매일 실적은 근 140%에 이르고있다.

본사기자 황철웅

포치사업에 앞서 보여준 이신작칙

평성시당위원회 일군들

모내기가 한창인 평성시의 협동농장들을 찾으면 시당일군들에 대한 좋은 반영을 들을수 있다.

시당일군들이 올해에 영농물자보장사업을 잘 밀어주어 큰 힘이 된다는것이다.

하다면 농촌에 더 많은 영농물자를 보내주기 위한 당적지도를 이곳 시당일군들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경리발전에 필요한 물질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려면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여야 합니다.》

결론부터 앞세운다면 영농물자보장을 위한 사업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묘술있게 진행한데 있다.

시당위원회는 그 묘술을 일군들의 이신작칙에서 찾았다.

처음에 시안의 협동농장들에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필요되는 영농물자량을 종합하던 일군들은 마음이 무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예견했던것보다 량이 엄청나게 많고 시의 현 조건에서 과연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들었던것이다.

이부자리 보고 발을 펴라고 타산없이 접어들수야 없지 않는가.

그러나 시당위원회 책임비서 리병룡동무는 더 높은 곳에서 문제를 고찰하고있었다.

—오늘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다. 조건과 가능성을 따지기에 앞서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립장에서 사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부터가 농촌에 더 많은 영농물자들을 보내주기 위한 사업에서 기수로서의 구실을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그는 자기의 심장에 먼저 구령을 내렸다.

그는 회의나 포치사업을 서두른것이 아니라 실천을 중요시하였다. 부족한 영농물자를 마련하는데 먼저 어깨를 들이대고 한모퉁이를 맡았다. 이렇게 되자 시당비서들은 물론 시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 시급기관당 및 행정일군들도 분발하게 되였다. 일군들은 가족들까지 동원하여 영농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솔선 나섰다.

그렇게 마련된 영농물자량은 적지 않았다. 그것은 일군들이 먼저 분발할 때 영농물자들을 자체로 마련하는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것을 실물로 느끼게 하였다. 또한 대중에게 주는 영향도 좋았다. 사람들은 일군들이 저렇게 영농물자보장을 위해 뛰는데 어떻게 가만있겠는가고 하면서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하여 시에서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짧은 기간에 많은 영농물자를 마련하여 농촌에 보내주는 성과가 이룩되게 하였다.

이신작칙이 안아온 응당한 성과였다.

대중에게 요구하고 호소하기에 앞서 자신들부터 발동된것이 올해 영농물자보장을 위한 사업에서 이곳 시당일군들이 보여준 정치사업묘술이였다.

본사기자 리정수

모내기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자들과 농장원들과의 사업을 짜고든다.
—안주시 청송협동농장에서— 신충혁 찍음

전변의 새 력사가 펼쳐진 백금산

룡양광산에서

룡양광산은 우리 인민들속에 백금산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광산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하얀 마그네사이트광석이 무진장한 이 지구의 산봉우리들을 둘러보시며 《백금산》이라고 이름지어주시면서 《여기에 있는 돌산은 〈금산〉이며 〈돈산〉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길에서 광산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집약적으로 명시하신 어버이수령님,

력사의 그날로부터 광산은 위대한 령도의 손길따라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현대적인 마그네사이트광석생산기지로 전변의 자랑찬 력사를 수놓아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대고조시대의 참된 애국자가 되자면 원대한 포부와 비상한 창조정신을 지니고 투쟁하여야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광산을 다녀가신 이후 수많은 기계설비들이 채굴장과 선광장, 조쇄장마다에 들어앉아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고 백금산의 봉우리마다에 계단식채굴장들이 전개되였다.

믿음직하게 꾸려진 로천채굴장마다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힘찬 발파소리에 백금산의 보화가 잠을 깨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크게 이바지하게 되였다.

무진장한 광석밭을 깔고앉은 룡양광부들의 기세는 얼마나 하늘을 찌를듯 하였던가.

날에날마다 세상을 놀래우는 새 기준, 새 기록이 창조되였으며 이 나날에 7호굴착기소대가 우리 나라의 첫 영웅소대로 태여났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러 룡양광산의 로천채굴은 지하채굴로 전환되여 백금산에는 전변의 새 력사가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금산》, 《돈산》으로 빛내주신 백금산을 강성대국건설대전이 벌어지는 선군시대에 더욱 빛을 뿌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멀고 험한 룡양땅에 찾아오시였던것이다. 광산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마그네사이트광석생산을 더욱 늘여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채굴의 대형화,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을 높은 광물생산성과로 빛내이자!

이런 불타는 지향과 열정을 안고 떨쳐나선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이기에 이들이 지난 몇해동안에 이룩해놓은 성과는 참으로 크다.

짧은 기간에 6월5일갱이 대형채굴장의 본보기갱으로 꾸려졌고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지혜가 합쳐지는 속에 채굴공학교과서에도 없는 전면붕괴식채굴공법이 광산실정에 맞게 새롭게 창안도입되였다.

2년전 광산을 또다시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형채굴장으로 꾸려진 6월5일갱에 들어가시여 채굴의 대형화, 현대화정형을 알아보시고 선진적인 채굴방법을 연구도입하여 광물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인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며 이들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광산!

다량채굴의 모범을 창조하고 광석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충천한 기세로 금산갱, 청년갱도 련이어 대형채굴장으로 전변시켜나갔다.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에 이들이 뿌린 땀방울은 훌륭한 결실을 맺고있다.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금산갱 대형채굴장안의 작업모습도 갱밖에서 감시하고 종합지휘할수 있는 콤퓨터종합지령실이 일떠서고 현대적인 채굴설비들이 늘어나 채굴의 대형화, 현대화가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되였다.

최근 광산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또 하나의 창조물이 일떠섰다.

광석매장량이 풍부한 서향산가까이에 마그네샤크링카와 경소마그네샤를 생산하는 현대적인 마그네사이트가공기지가 훌륭히 꾸려졌다.

지난해초에 시작하여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한 마그네사이트가공기지는 보는 사람마다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무진장한 광석이 매장되여있는 서향산을 끼고 소성로들이 줄지어 일떠서고 새파란 지붕재를 얹은 제품가공장, 저장고 등이 아담한 규모로 들어앉아 광산이 새 모습으로 단장되였다.

하나하나의 소성로들마다에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백금산을 영원한 청춘광산으로 빛내가려는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의 뜨거운 헌신의 마음이 비껴있다.

크링카공업의 발전과정에 남들이 이미 해보던 방법으로 손쉽게 소성로건설을 밀고나갈수도 있었으나 이들은 광산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자기 식의 창조방식을 택했다.

철판대신 내화물로 벽체를 축조하여 소성온도의 변화를 줄였으며 로형식도 독특하게 설계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질좋은 제품들을 쨍쨍 생산해내고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전진하며 비약하는 내 조국의 진군속도에 발걸음을 맞추어 끊임없이 전변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고있는 백금산의 일군들과 광부들,

어제도 오늘도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진군길에서 새로운 혁신과 위훈만을 떨쳐가고있는 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다 훌륭히 전변될 영광의 땅 백금산의 래일을 그려본다.

본사기자 리철옥

큰모재배에서 나서는 기술적요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를 잘 짓자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키며 큰모와 두벌농사를 비롯한 현실적인 영농방법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큰모재배는 박막없이 농사짓는 기술로, 논두벌농사와 간석지벼농사에 적합한 선진영농기술로 광범히 도입되고있다.

큰모재배방법은 논벼잎나이공식에 따라 모내기할수 있는 최대잎나이와 유효아지치는 잎나이, 헛아지치는 잎나이, 이삭생기기시작잎나이를 진단하고 잎나이에 따라 벼재배기술공정을 관리하는 높은 수준의 집약농법이다.

일명 모판농사라고도 하는 큰모재배에서는 모를 해당 잎나이까지 정확히 키워 내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해진 잎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어린 모를 내면 모가 모자랄뿐아니라 여무는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 반대로 잎나이가 지나도록 모판에서 오래동안 키워내면 때아닌 이삭나오기가 진행되여 소출이 심히 떨어진다.

모판에서 잎나이에 따라 비료주는 시기를 철저히 지키고 량을 정확히 보장함으로써 충실한 모를 길러내도록 하여야 한다. 큰모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모판에서 잎색이 한번만 누래지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7~10일이 걸리며 아지를 치지 못한 큰모가 되여 모가 모자라고 소출이 떨어진다.

모판물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4잎까지는 물을 충분히 대주었다가 밭상태로 말리우는 방법을 반복하면서 키운다. 그 이후부터는 얕은물대기를 하여 아지치기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큰모재배에서는 중간종, 중간늦종 등 다수확품종을 늦게 씨뿌리기하고 늦게 모내기하여도 이삭이 제 시기에 패고 잘 여문다.

원그루큰모의 모내기는 6월 중순경에 하며 뒤그루큰모의 모내기는 6월 하순에 한다.

간석지, 랭습지, 중산간지대, 동해안지연성랭해지대에서는 6월 중, 하순에 큰모를 내는것이 좋다.

모를 뜨면서 모의 키가 25~27㎝ 되게 잘라준다. 이렇게 하면 자른 자리에 재생호르몬함량이 높아져 새잎나오는 속도와 뿌리내리는 속도가 빨라지며 잎면적이 줄어들어 모살이를 빨리 하고 벼열병에도 적게 걸린다. 뜬 모춤은 곧추 세워주며 운반할 때에는 상하는 모가 없도록 모함에 눕혀쌓아야 한다.

큰모를 낼 때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큰모모내기대수계산도표에 따라 정확히 정하여 해당 필지의 목표이삭수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큰모의 평당 모내기대수를 너무 적게 설정하면 이삭수가 적어지며 너무 많이 설정하면 아지들이 사그라지면서 소출이 훨씬 떨어진다.

포전에서 비료주기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큰모의 모내기잎나이는 비료를 중기중점균형시비하는 잎나이와 거의 비슷하다. 따라서 비료를 여러번 나누어주지 말고 모내기할 때 전층과 표층에 규정된 량을 다 주어야 한다. 이삭비료는 유기광물질비료를 만들어주는것이 좋다. 감자뒤그루로 큰모를 낼 때 비료를 너무 많이 주지 말아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교수 박사 정종수

기구공장에서 나가고있다. —함흥청년전기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힘있게 다그쳐 김철우 찍음

선구자의 영예드높이 주체철생산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성강의 파도는 불멸의 업적을 전한다

북방의 철의 기지 성강의 바다기슭에 파도가 철썩인다.

장쾌한 해돋이에 물들어 한껏 붉어진 파도는 쉼없이 설레이며 선군시대와 더불어 위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진 성강의 변혁의 새 력사를 전한다. 온갖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마침내 승리의 언덕에 올라선 자랑찬 로정, 나날이 왕성한 힘을 지니고 청춘의 활력으로 강성대국의 새 아침을 남먼저 마중가는 환희와 긍지, 그 모든것이 력사의 증견자 성강의 파도에 실리여있다.

우리는 여기 동해의 기슭에서 성강의 로동계급을 시대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성강을 번영의 언덕에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돌이켜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강철로 당과 수령을 앞장에서 보위하여온 영웅적인 로동계급이며 앞으로도 이 빛나는 투쟁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변함없이 이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성강은 강성대국의 문어구에 확고히 다달았다.

주체철생산체계가 완성되고 내화물과 전극을 제힘으로 질좋게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기지들을 꾸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여 철강재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리고있다.

앞공정으로부터 마감공정까지 이빠진 공정이란 없이 그쯘하며 일체 모든 공정을 강성대국의 체모에 어울리게 현대적으로 일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날에날마다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여기에 전국의 본보기인 후방공급기지들까지 더 용을 쓰고있으니 진정 성강땅의 자랑은 끝없이 늘어나고있다.

이 경이적인 현실앞에서 성강사람들은 위대한 창조자이신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만복의 은인이시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간고한 시련의 나날을 헤쳐온 실지체험으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과 심장의 피줄을 잇고 살아온 혈연의 감정으로부터 분출한 이 진정어린 말속에 력사의 진실이 있다.

조국이 최악의 시련을 겪고있던 그때 성강이 다시 일어설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주체87(1998)년 3월 성강땅에 만물을 소생시키는 태양의 빛발이 와닿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멀고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으시여 북방의 철의 기지를 찾아오시였던것이다.

붉은 쇠물과 철강재더미를 가슴후련히 보여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안고 로동자들이 죄스러워하고 일군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강의 로동계급에게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잊을수 없는 그날 성강의 로동계급은 영웅적투쟁전통을 가지고있다고 고무해주시며 온 나라의 앞장에서 구보로 내달리라고 성강의 봉화를 지펴주신 위대한 장군님,

성강의 봉화, 이는 성강을 다시 일떠세워 총진군대오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홰불이였다. 그것은 시련의 두터운 얼음장을 녹이는 빛이였고 열이였으며 희망의 눈석이였다.

우리 장군님 지펴주신 그 봉화아래 성강땅에는 봄기운이 돌고 생산정상화의 불길이 솟구쳐올랐다.

성강의 봉화를 높이 들고 간고분투의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성강의 로동계급은 우리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는 철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였다.

성강사람들은 시대의 영웅으로 자라났다. 많은 사람들에게 **김일성**훈장, 로력영웅칭호가 수여되고 박사칭호가 수여된 날 성강사람들은 한없이 고마우신 우리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로 한밤을 지새웠다.

그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성강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차례나 찾아주시였으며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의 뜻을 더욱 활짝 꽃피워 우리 나라 강철공업의 력사적과제였던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대형산소분리기를 기업소에 설치하도록 하시여 생산장성의 든든한 기초를 마련하여주신분도, 기업소에서 하고있는 주체철생산연구방법을 쌍손을 들어 지지한다시며 새 힘과 고무를 안겨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강의 로동계급이 난관앞에 주저할세라 검은구름의 장막을 헤가르며 격랑을 일으키는 붉은 파도를 형상한 미술작품도 보내주시고 그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혁명적인 조치들을 련이어 취해주시였다.

정녕 믿음을 주시고 새 힘과 활력을 주시고 비약의 나래를 달아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성강의 로동계급은 시대의 앞장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떨칠수 있었으며 온 나라를 격동시키는 승리의 통장훈도 부를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또다시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주체철생산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면서 생산능력확장공사와 현대화공사들을 통이 크게 벌리고있는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자식들의 살림살이를 돌보는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오리목장까지 돌아보시고 한식솔의 친근한 어버이가 되시여 로동계급과 한자리에서 기념촬영까지 하여주실 때 성강사람들은 받아안는 사랑이 너무도 고마와 눈굽을 적시였다.

기업소로동자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성강로동계급을 아껴주고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헌신의 나날을 다 적자면 끝이 없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두해전 위대한 장군님의 초청을 받고 평양에 올라가던 때의 격정을 오늘도 심장에 안고 산다.

채 식지 않은 강피를 쓸어보고 또 쓸어보시며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을 안아온 성강의 로동계급에게 무엇인가 하나라도 더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 성강의 로동자, 기술자대표단을 평양에 초청하여 온 나라의 축복을 받도록 해주시였으니 진정 그 위대한 어버이사랑은 선군시대에 또 하나의 전설을 낳았다.

자애로운 그 사랑을 싣고 렬차가 달리고 류례없는 행사들도 진행되던 그 나날을 성강사람들은 지금도 뜨겁게 추억하고있다.

전문축산기지 못지 않게 생산을 잘하는 오리목장에 가도, 성강원에 가도, 콩종합가공장에 가도 어버이의 사려깊은 사랑의 세계가 심장을 파고든다.

정녕 시대의 선구자앞에는 은혜로운 손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은인이 계신다.

불타는 심장, 땀젖은 손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남먼저 열어제끼고있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승리의 활로를 따라 폭풍쳐 내달릴것이며 성강의 붉은 파도는 뜨겁게 솟구치며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세세년년 길이 길이 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진수

전면돌파전을 벌리는 창조의 기수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에서 크나큰 고무적힘을 얻고 일판을 더 크게 벌리며 폭발적힘으로 내달리는 철의 기지 성강,

이곳 로동계급은 지금 조국과 시대앞에서 자신있게 웨치고있다.

성강은 강성대국의 대문안에 제일 선참으로 들어설것이다!

실로 심장을 격동시키는 웨침이다.

생산과 현대화, 후방사업 등 모든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 서자는것이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한결같은 포부이고 드팀없는 의지이다. 온 기업소에 제일먼저, 이 하나의 부름이 메아리치는 속에 번영의 앞날을 예고하며 큼직한 사변들이 태동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새것을 지향하여 부단히 탐구하고 창조하는 성진제강련합기업소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있으며 답보와 침체를 모르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기업소로동계급의 투쟁열의는 매우 높습니다.》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올해안으로 실현한다는것은 사실상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협의회에서는 심각한 론의가 계속되고있었다.

기업소의 현존능력을 고려하여 현대화의 목표들을 단번에 다 돌파할것이 아니라 단계와 순차를 잘 정하고 하나씩 해나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아닙니다. 전면돌파해야 합니다. 모든것을 동시에, 그것도 올해안으로 끝내야 합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남먼저 열자면 잡도리부터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의 이 선언은 생산능력확장 및 현대화공사에로 전체 종업원들을 불러일으키는 진격의 나팔소리와도 같았다.

온 기업소에 돌격의 함성소리가 세차게 울려퍼졌다.

강력한 공사지휘부가 조직되고 기술자, 기능공들이 인입되였으며 설비와 자재, 운수기재를 비롯하여 기업소의 력량이 총동원되였다.

쪼물짝한것을 싫어하고 남들이 한걸음 걸을 때 열걸음, 백걸음 달려야 성차하는 성강의 로동계급은 방대한 일감앞에서 놀라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통이 큰 일판에 더 자신만만하게 뛰여들었다. 누구나 두몫, 세몫씩 일감을 안고 분주히 뛰여다니였다. 밤잠도 잊었고 퇴근길도 잊었다.

일감이 늘어난다는것은 그만큼 래일에 거두어들일 행복의 열매가 많아진다는것을 의미한다.

원료선별공정을 비롯하여 맨앞공정부터 하나하나 실속있게 다지여 생산의 만년토대를 닦기 위한 수십개 대상의 공사가 격렬하게 벌어졌다.

전국직장에 새로운 성형장을 건설하는 공사도, 1, 2호산소용융로에 제진설비들을 제작설치하는 공사도, 능력이 큰 발전소건설도 모두 헐치 않은 대상들이였다.

결사전을 들이대는것만으로는 이 숱한 공사들을 제 기일에 마무리지을수 없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두뇌전, 기술전을 벌리는데 승리의 길이 있다는 확고한 관점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전개하는 한편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현장에 붙어살다싶이 하고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속에는 언제나 기업소의 당 및 행정일군들이 있었다. 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앉아 새로운 착상도 틔워주면서 성공의 언덕으로 한치한치 떠밀어주었다.

밑불이 이글거리니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더욱 거세차게 타번졌다.

부지배인 최영일동무를 비롯한 현대화공사지휘부의 일군들은 대상별, 공정별로 기술력량을 잘 분할하고 맞물림사업을 짜고들어 방대한 공사를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공업시험소와 설계실의 기술자들, 자동화과의 리일섭, 리철동무들은 강한 민족적자존심의 불길로 미지의 과학세계를 밝히며 창조의 낮과 밤을 이어갔다.

보수직장, 제관직장에서 불꽃튀는 생산경쟁속에 기존공법들을 타파하며 기적을 창조할 때 기업소의 김혁청년돌격대원들은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에 남먼저 뛰여들었다.

그렇다. 부강조국의 새날은 절로 밝아오지 않는다.

휘황한 미래는 웅대한 포부를 안고 진격의 발걸음에 련속 박차를 가하는 공격자들, 과학기술을 보검으로 틀어쥔 창조의 능수들의것이다.

성강은 결심하면 한다.

이제 각이한 강종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할수 있게 일터를 더 훌륭하게 개건하고 전국의 본보기인 후방사업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성진제강련합기업소는 반드시 올해안에 승리의 통장훈을 다시 부를것이며 환희로운 미래의 언덕에 제일먼저 올라서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창선

뜨거운 사랑, 크나큰 믿음

쇠물보다 먼저 보신것은

용광로에서 쇠물이 쏟아지는 광경은 참으로 장쾌하다.

그래서인지 흔히 용광로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출강시간부터 묻군 한다.

그러나 이번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5월17일공장의 1호산소용융로를 찾으시였을 때 쇠물보다 먼저 로의 제진상태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일군들은 지난번 현지지도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간곡히 말씀하신대로 로를 전면적으로 밀폐하고 제진장치와 설비들을 가동시킨 결과 먼지가 기본적으로 사라진데 대하여 보고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업소의 여러 단위를 오랜 시간 돌아보실수록 련합기업소일군들의 마음은 저으기 긴장되였다.

한것은 아름찬 당면생산과제를 안고있는 기업소에서 어벌이 크게 능력확장과 현대화를 위한 요란한 공사들을 너무 많이 벌려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때문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걱정이였다.

산화배소구단광생산공정을 료해하실 때에도, 새로운 현대화목표와 관련한 설명을 들으실 때에도, 고압관직장과 유도로를 돌아보실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것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시였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고있는 일군들을 고무해주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를 받으며 일군들은 하자고 달라붙은 일은 반드시 해내고야마는 성강의 로동계급에 대한 그이의 기대와 믿음이 얼마나 크고 변함없는것인가를 다시금 심장으로 뜨겁게 절감하였다.

전적인 지지

오리목장을 또다시 찾으시여

기업소의 여러 단위들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몇해전에 다녀가신 오리목장을 다시 보자고 하실 때 기업소의 일군들은 송구함을 금할수 없었다.

오랜 시간 기업소를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를 생각할 때 차마 선뜻 안내해드릴수 없는것이 일군들의 마음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쌓이신 피로도 아랑곳없이 오리목장을 다시 찾으시였다.

알깨우기실에 들리시여 생산능력도 알아보시고 콤퓨터를 다루는 기대공의 작업모습도 유심히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알깨우기기대안을 들여다보실 때였다. 그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듯 마침 알깨우기기대안에서는 새끼들이 까나오고있었다. 그것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시름을 잊으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오리목장의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여 로동자들이 실지 그 덕을 보고있는데 대한 더없는 기쁨과 만족의 미소였다.

일군들은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오신 길 또 오시여 사랑만을 베푸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경건히 우러르며 인민의 헌신적복무자로 살아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직 미흡한데가 있다고 하시면서 먼지잡이를 더 잘할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은 모두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언제나 생산보다도 로동계급의 건강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어버이장군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세계에는 정녕 끝이 없었다.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단상

박차

현대화공사지휘부에서 다음날일정을 토론할 때였다.

추가적인 조립과제를 받은 한 초급일군이 《이거 또 박차를 가해야겠군.》하고 씩 웃으며 자리에 앉는것이였다.

그러자 조직사업을 하던 일군이 제꺽 그 말을 받았다.

《바로 말했소. 바쁜 때인데 박차에 또 박차를 가해야지. 준마도 박차를 가해야 더 빨리 달린다니. …》

모두가 웃었지만 나의 생각은 깊어졌다.

박차, 이 말에 성강사람들의 줄기찬 공격정신이 반영되여있고 우리 인민의 열망, 시대의 숨결이 실려있는것이 아니겠는가.

김철과 룡성, 흥남과 락원…

대비약의 기상이 나래치는 대고조격전장들에서 방금 이룩한 성과를 발판으로 하여 쉼없이 새로운 높이에로 도약하는 공격형의 인간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보아왔던가.

그렇다.

2012년을 향하여 내달리는 조국의 진군속도는 누구나 비약의 발걸음에 련속 박차를 가할 때 더욱 빨라지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속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정신력으로 가하는 박차, 과학기술의 힘으로 가하는 박차야말로 기적과 위훈을 안아오는 추동력이 아니겠는가.

날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밤을 모르는 성강은 또다시 창조의 불꽃을 날리며 거센 동음을 울리고있었다.

잠들줄 모르는 성강의 모습은 희망의 언덕을 향하여 불을 안고 질풍같이 달리는 거대한 준마의 형상으로 안겨왔다.

본사기자

아프리카 여러 나라 대통령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 접견

【평양 5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를 28일과 29일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취임식 행사에 참가한 굳락크 에벨레 죠나탄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 쟈코브 게들레이홀레키사 주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로버트 지. 무가베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 뽈 까가메 르완다공화국 대통령, 요웨리 카구타 무쎄베니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아브둘라이 와드 세네갈공화국 대통령이 각각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통령들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양형섭동지가 전하였다.

대통령들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부탁하였다.

나이제리아대통령은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반드시 강성대국을 건설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짐바브웨대통령은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나아가는 조선의 현실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조선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킬것이라고 말하였다.

르완다와 우간다대통령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받들고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의 선군정치가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세네갈대통령은 조선과의 협조를 계속 확대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양형섭동지는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 감비아공화국 부대통령,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전 대통령인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 신용위원회 위원장, 모잠비끄공화국 국방상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아부쟈 도착

【평양 5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하기 위하여 28일 이 나라의 수도 아부쟈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나이제리아상업 및 공업성 국무상을 비롯한 정부성원들과 나이제리아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맞이하였다.

중국대북국제륙상초청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평양 5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중국대북국제륙상초청경기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30일 귀국하였다.

5월 27일과 28일에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는 15개 나라와 지역의 남, 녀선수 13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의 김선희, 윤은희선수들은 륙상 5 000m달리기, 1 500m달리기 녀자경기에서, 박금향선수는 륙상 3 000m장애물달리기 녀자경기에서 각각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고 금메달을 수여받았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이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며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금메달을 쟁취한 김선희, 윤은희, 박금향선수들

백두산을 안고 사는 수도의 봉사자들

창광봉사관리국에서

수도의 창광음식점거리는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봄날의 해빛처럼 따사롭게 비쳐드는 창광음식점거리,

시원한 고기쟁반국수를 앞에 놓으면 엄지손가락이 절로 나간다는 창광산국수집과 독특한 맛으로 유명한 숯불꼬치구이집,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맛볼수 있는 서양료리집이며 짜장면집을 비롯하여 10여개의 식당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이 현대적인 음식점거리에서 각계층 근로자들이 갖가지 료리들을 봉사받으며 기뻐하는 모습은 우리 평양의 자랑이며 또 하나의 이채로운 풍경이다.

우리는 수도의 이 아름다운 풍경이 여러 도와 군의 지경을 넘어 백두산두메에도 펼쳐지군 하는 사연을 전하려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꽃펴나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여있는 참다운 조국입니다.》

하얀 서리꽃이 눈부신 세계를 펼친 지난 2월초 어느날이였다. 삼지연군 백두산밀영로동자구에서 집집의 문이 활짝 열리며 명절옷차림을 한 주민들이 연줄연줄 나왔다.

《수도의 봉사자들이 또 왔대요.》

《이번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밀가루가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높이 평가하신 짜배기도 봉사한다나봐요.》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그들이 가닿은 곳은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에서 멀지 않은 근로자각이였다. 그곳에서 창광봉사관리국 이동봉사대원들이 만단의 봉사준비를 갖추고 손님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봉사자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식사실에 들어서는 손님들의 얼굴에 밝은 웃음이 피여났다.

《난 후더분한 내포국이 좋더구만.》

백두산밀영로동자구의 한 주민이 이런 말을 하며 김이 문문 피여오르는 식탁에 성큼 가앉았다. 그러자 몇사람이 그의 뒤를 따랐다.

나머지사람들도 봉사차림표를 훑어보며 저마다 마음에 드는 음식을 골랐다.

어른들의 틈바구니에서 빠져나온 아이들은 군밤이며 군고구마, 짜배기 등을 봉사하는 식탁앞에 오롱조롱 모여들었다.

《뜨끈뜨끈한 메기탕도 있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숯불꼬치구이와 짜장면, 강령록차 뭐나 다 있습니다.요구대로 청하십시오.》

창광봉사관리국 일군인 김종건동무가 이렇게 권하는데 누군가 그의 팔을 덥석 잡았다. 이미 구면인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 학술연구원 김성호동무였다.

《수도의 음식맛이 참 별맛입니다. 우리 백두산사람들이 그 맛에 정을 들인지도 어언 10여년이 되였구만요.》

이동봉사대활동의 10여년!

수도의 봉사자들과 백두산밀영지구 주민들이 서로의 심장에 뜨겁게 간직한 못 잊을 나날이였다.

창광봉사관리국의 첫 이동봉사대가 백두산밀영지구로 향한것은 15년전 2월이다. 그때 봉사대원들의 대다수는 눈보라세찬 겨울철의 백두산길을 처음 밟아보는 애젊은 녀성들이였다.

관리국일군인 김명숙동무는 그들을 이렇게 고무하였다.

《동무들, 힘을 내자요. 백두산밀영지구의 주민들이 어버이장군님의 은정어린 음식들을 받아안으면 얼마나 기뻐하겠나요.》

수도시민들은 물론 각지의 근로자들이 창광음식점거리를 찾아 우수한 민족료리와 함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음식들을 봉사받고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으로 목메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관리국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와 함께 하나의 생각이 움터났다. 혁명의 성산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백두산을 빛내이는 길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는 백두산밀영지구 주민들의 생활에 당의 은정이 더 잘 미치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더해주고싶은 간절한 마음이였다.

이렇게 되여 지난 10여년간 해마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백두산밀영지구에서 이동봉사활동이 진행되였다.

그들의 성의있는 봉사활동을 통하여 백두산밀영지구의 주민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가슴깊이 느꼈으며 백두산과 더불어 한생을 빛내여갈 맹세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창광봉사관리국 이동봉사대원들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백두산밀영고향집의 정가로운 샘물을 떠다가 경사로운 2월의 명절봉사에 리용하였다. 그것은 수도시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해마다 뜻깊은 2월이면 백두밀림속에는 수도의 이채로운 풍경이, 창광음식점거리에는 백두산밀영고향집 샘물터의 유정한 풍경이 펼쳐지고있다.

무릇 풍경은 자연적인것이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사라질수도 잊혀질수도 있다.

그러나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넋을 잇고, 삶의 피줄기를 잇고 사는 우리 인민의 불타는 심장이 안아올린 이 아름다운 풍경은 세세년년 변함이 없을것이다.

그것은 령도자에 대한 인민의 열화같은 충정이 비끼고 근로대중에 대한 봉사자들의 헌신적복무정신이 비껴있는것으로 하여 시대가 낳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화폭으로 후세에 전해지리라.

본사기자 허명숙

여러 정당출신 국회 상원의원들의 프랑스조선연구그루빠대표단 도착

【평양 5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사회당출신 국회 상원의원이며 상원 프랑스조선연구그루빠 위원장인 쟝 끌로드 프레쫑을 단장으로 하는 여러 정당출신 국회 상원의원들의 프랑스조선연구그루빠대표단이 3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영철, 관계부문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독자의 편지

내 나라는 화목한 대가정

저는 전쟁로병이며 영예군인인 박장우의 안해입니다. 20여년세월 변함없이 우리 가정을 위해 뜨거운 진정을 바쳐가고있는 고마운 사람들의 소행을 전하고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평양고려호텔 로동자 남경란동무와 창광봉사관리국 창광산국수집의 봉사자들, 리금정동무를 비롯한 류경릉라식당 종업원들…

저의 가정을 조국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한 로병가정이라고 하며 해마다 친자식된 심정으로 생일상도 차려주고 보약재들도 안겨주며 생활의 꽃을 활짝 피워주는 고마운 그들의 소행을 어찌 한두마디로 다 전할수 있겠습니까.

한두해도 아니고 20여년세월 명절날, 휴식일은 물론이고 평범한 날에도 때없이 찾아와 생의 활력을 주고 량만을 주며 친혈육의 정을 쏟아붓는 이런 지성속에서 남편과 저는 나날이 젊음을 되찾고있습니다.

진정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인 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평천구역 해운2동 28인민반 장학녀

《체제통일》야망을 추구하는것은 어리석은 자살행위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이 전에 없이 《통일》이라는 낱말을 곧잘 입에 올리고있다. 얼마전 리명박역도는 도이췰란드행각과정에 베를린장벽이 어쩌구저쩌구 하며 《통일이 곧 올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었다. 보수패당내부에서는 그전에도 《통일세를 준비하자.》느니, 《통일이 가까와온다.》는따위의 소리가 한두번만 울려나오지 않았다.

사상 류례없는 반통일대결집단으로 악명높은 현 보수집권세력이 쩍하면 《통일》을 운운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실지로 통일을 바라서가 아닌것은 물론이다.

집권하여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로 몰아넣은것이 다름아닌 현 보수패당이다. 그들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면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선언들에 의해 이룩된 성과들을 깡그리 유린말살하였다. 특히 《핵포기우선론》과 《비핵, 개방, 3000》을 내들고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기 전에는 어떤 대화나 협력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하면서 북남대화와 접촉을 모조리 차단시키고 협력사업에 빗장을 질렀다. 보수패당이 우리의 거듭되는 대화제안을 한사코 외면하고 부정함으로써 북남당국사이에는 한번도 변변한 대화가 열리지 못하였으며 겨우 열렸던것마저 종내 파탄되고말았다. 그뿐인가. 보수패당은 6.15이후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속에서 잘 진행되여오던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접촉과 교류도 중단시키고 온 민족에게 통일의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던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다. 오히려 외세와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뻔질나게 벌려 이 땅에 전쟁위기만을 더욱 고조시키였다.

이러한 극우대결집단이 운운하는 《통일》이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우리를 기어이 해치고 저들의 썩어빠진 체제를 연장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 보수패당은 이처럼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이 어려있는 통일이라는 신성한 부름을 저들의 불순한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간판으로 써먹고있는것이다.

리명박패당이 떠드는 《체제통일》론은 반공화국압살야망의 산물이다.

보수패당은 지난 기간 허황하기 그지없는 그 누구의 《급변사태》설을 운운하며 《통일대계탐색연구》, 《비상통치계획》과 같은 불순한 대결각본들을 꾸며내고 《통일헌법》작성이니, 《통일세》도입이니 뭐니 하며 분주탕을 피워왔다. 그들은 지난 시기 북을 동족으로 대한것도 잘못이라고 하면서 《주적》개념을 부활시키였는가 하면 북을 《변화》시킨데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을 《궁극적목표》로 해야 한다고 내놓고 력설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이다. 우리 겨레가 비록 외세에 의하여 서로 다른 제도에서 갈라져살고있지만 그로 인한 차이는 반만년을 내려오며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적공통성보다 클수 없다. 우리 민족이 력사적으로 면면히 이어온 민족적공통성을 기초로 한다면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공존할수 있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적가능성은 외면하고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체제통일》을 주장하는 밑바탕에는 동족압살야망이 짙게 깔려있다.

그 무슨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을 떠들며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미쳐날뛴 《유신》독재자나 그뒤를 이어 북남대결에 기승을 부린 《5, 6공》군부깡패들, 북남관계를 대화도 협력도 없는 완전격페상태에 몰아넣었던 《문민》통치배들도 이처럼 악랄하게 반공화국야망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보수패당이 극구 제창하는 《체제통일》론은 겨레의 지향과 념원에 배치되는것으로서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한피줄을 나눈 동족이 분렬의 장기화로 서로 다른 체제하에서 살고있는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서 일방이 자기의 체제를 남에게 강요하려는것은 불피코 전쟁과 같은 민족적재난을 빚어내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은 《체제통일》야망을 품고 《북핵선제타격》폭언과 《전쟁불사》망발을 마구 줴치며 상전과 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모의들을 련이어 벌리면서 새로운 북침작전계획들을 작성하고 이를 실전에 옮기기 위한 북침전쟁연습과 최신전쟁장비들의 도입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미국과의 결탁밑에 전례없는 특대형모략사건과 엄중한 군사적충돌사건을 도발하여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갔다.

지금 온 겨레는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할것을 바라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보수패당은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흉계를 실현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이로써 남조선보수패당은 우리와의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바라지 않으며 대결정책을 유지하면서 새 전쟁도발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였다.

남조선에서 지금까지 《정권》이 여러번 바뀌였지만 리명박패당과 같은 추악한 친미사대, 동족대결미치광이무리는 없었다. 리명박역도는 얼마전 개각을 하면서 해임이 예견되였던 통일부 장관 현인택을 《북에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다.》고 하면서 류임시키였으며 저들의 《대북정책》이 효과를 거두고있다고 떠들면서 그것을 계속 강행할 속심을 드러내놓았다.

민심을 다 잃고 제 집안에서도 고립배격당하여 앞날이 없게 된 리명박패당이 동족대결에서 무엇을 얻어보려 하는것이야말로 가소로운 추태이다.

지금 괴뢰들은 그 무슨 《급변사태》를 망상하며 어리석게 놀아대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끄떡없이 나날이 승승장구하고있으며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당의 위대한 선군령도를 받들어 철통같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건설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으며 희망찬 포부를 안고 사기충천하여 이 땅에 창조와 변혁, 기적과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고있다.

급변사태가 일어날 곳은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날이 갈수록 정치적혼란과 위기가 심화되고 인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있다. 반인민적정책과 사대매국책동을 반대하는 각계층의 분노의 웨침이 하늘에 닿고 지배층내부싸움으로 수라장이 되고있는것이 남조선이 처한 현실이다. 이런 주제에 누구를 넘보는가.

우리는 지난 기간 숭고한 애국애족의 립장과 화해와 단합, 통일의 일념에서 집권 첫날부터 북남대결을 제창하는 리명박《정권》을 인내성있게 지켜도 보았고 북남관계와 관련한 그들의 시대착오적인 그릇된 자세에 대해 충고도 하고 대화의 기회도 주었다.

그러나 보수패당은 이것을 다 뿌리치고 갈수록 우리와 엇서고있다. 우리는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바라지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은 안중에도 없이 우리의 존엄과 제도를 감히 부정하면서 체제대결책동에 미쳐날뛰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

《체제통일》야망은 괴뢰들의 파멸과 잇닿아있다.

허 영 민

미래를 앞당겨오는 헌신의 장정

조중친선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머나먼 중국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무사히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온 나라 전체 인민은 다함없는 축원의 마음을 담아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있다. 1만 5000여리의 머나먼 중국방문길에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조국에 돌아오시는 길로 희천발전소 건설장을 찾으시여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신 경애하는 장군님!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을 련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해들으며 온 나라 인민은 뜨거운 격정을 금치 못하고있다. 어느 시대, 어느 력사에 한 나라의 령도자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그렇듯 위대한 헌신의 자욱을 끊임없이 새겨간 감동깊은 이야기가 있었던가.

하기에 남녘인민들도 조국과 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해 언제나 끊임없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르며 격정의 마음을 한껏 터치고있다. 지금 남녘겨레들은 《**김정일**장군님의 현지지도로정은 강성대국의 미래를 앞당겨오는 위대한 사랑의 자욱이다.》, 《**김정일**령도자님께서 불면불휴의 현지지도길을 걷고 걸으시기에 이북민중의 행복은 꽃피고 강성대국은 솟아오른다.》,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이북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은 확정적이다.》라고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에 접할 때마다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마음을 진정하지 못한다는 서울의 한 교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온 나라 방방곡곡의 공장과 광산, 건설장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며 오늘도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고계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언제나 민중속에 계시며 민중행렬차에서 쪽잠에 드시고 줴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생신날마저도 민중을 위해 불면불휴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분이 바로 **김정일**령수님이시다.》

남조선의 현대사연구원의 한 성원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걸음을 많이 걷고 밤잠도 덜 자면서 고생을 하면 민중이 보다 행복해지는것만큼 락을 바라거나 자기 하나 잘 먹고 잘살 생각을 할것이 아니라 민중에게 헌신하는데서 민중의 충복된 자부를 찾을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손수 그 모범을 보여주고계신다. 민중생활의 현장을 찾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가 그이께 있어서 곧 휴식으로 되고있다.》고 격정을 터쳤다.

수천수만리로 이어진 현지지도의 로정우에 사랑과 믿음의 혁명전설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풍모에 매혹되여 경탄과 칭송의 마음을 터놓는 사람들이 어찌 이들뿐이랴.

《어떻게 하면 민중에게 더 행복한 삶을 안겨주겠는가. **김정일**장군님의 사색과 실천은 여기에 집중되고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그이의 현지지도도 민중이 어떤 식료품을 먹고 어떤 생활필수품을 사용하며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무엇을 바라는가를 알아보시고 민중의 요구를 해결해주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명처방을 찾아내시기 위한 것이다.》

《**김정일**장군님의 현지지도길은 이북민중의 기쁨이 커지고 나라의 재부가 늘어나는 길이다. 부강번영의 도약대가 마련되고 민중화원이 더욱 개화만발하는 로정이다. 민중을 찾으시는 그이의 걸음걸음에서 오늘은 이북민중의 행복과 번영의 씨앗이 움터나 탐스러운 열매로 주렁지고있다.》

만사람을 한없이 격동시키며 남녘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울려나오는 이러한 목소리들에는 인민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대한 남녘겨레들의 찬탄과 경모의 정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남녘겨레들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을 우러르며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송 영 석

범죄자를 비호두둔하는 역적무리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반인륜적인 범죄만행을 보여주는 고엽제매몰사건은 남조선 각계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과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그러나 이를 대하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는 너무도 판이하다.

보수패당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조사보다도 오히려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감정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면서 사태를 수습해보려 모지름을 쓰고있다.

미군범죄를 비호두둔하는 남조선당국의 역적행위는 어제오늘에 비로소 시작된것이 아니다. 현 《한나라당정권》의 미국에 대한 사대굴종의 뿌리는 실로 깊다.

지난 1960년대말에 남조선강점 미군이 괴뢰군을 내몰아 비무장지대의 서부와 동부에 많은 량의 고엽제를 뿌렸다는것은 이미 폭로된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당시 남조선당국이 고엽제살포량을 실지보다 50배나 줄여서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비무장지대에 뿌린 고엽제가 월남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한 고엽제보다 독성이 훨씬 더 강하며 그것을 미제가 괴뢰군사병들이 손으로 뿌리게 하였다는것이 판명되였다. 미국에서 나온 문건들에도 살포량이 정확히 기록되여있는데 남조선당국만이 진실을 감추고 줄여서 발표한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돌려준 사격장들의 대부분이 기준치수보다 무려 100배이상에 달하는 중금속에 오염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모르는체 하여 물의를 일으킨적도 있다.

이것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파렴치성과 《한나라당》조상들의 사대매국근성을 폭로하는 생동한 증거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번 고엽제매몰사건 역시 《한나라당》조상들이 저지른 미군범죄에 대한 비호조장의 후과이다.

지금 리명박패당은 미제의 고엽제매몰사건처리에서 신통히도 자기 조상들의 본을 그대로 따고있다. 보수당국은 사건이 세계에 알려진지 며칠이 지난 후에 그것도 민심의 분노가 높아지는데 바빠맞아 《조사》에 착수하는 흉내를 피웠으며 더우기 범죄적만행의 진범인 미군에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추태를 부렸다.

보수패당의 처사에 분노한 각계층은 범죄자가 사건을 조사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민간인들과 전문가들로 합동조사단을 무어 조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미국과의 《행정협정》을 구실로 《공동조사와 후속조치, 평가, 제거와 비용합의단계를 거친다.》는 수작을 늘어놓으며 분노한 민심을 가라앉히고 범죄적만행을 비호두둔해보려 하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을 한갖 식민지로 여기는 미제침략군이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낱낱이 조사하고 인정하며 그 제거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리는 만무하다. 실지로 지금 남조선강점 미군은 고엽제매몰장소의 토양을 분석해본 결과 제기된것이 없으며 일부 고엽제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기록되여있는것이 없어 알길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있다.

최근년간 반환된 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사실들도 과연 범죄자에게 사건조사를 맡길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주고있다. 더우기 오염제거비용과 관련하여 진행된 회담에서 남조선당국이 그것을 부담하기로 한 전례로 보아 보수패당의 처사가 저들의 선행자들처럼 미군의 만행을 감싸주기 위한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이 여론의 주장이다.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을 위해서라면 외세가 제땅에서 저지르는 범죄도 묵과할수 있고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도 얼마든지 외면할수 있다는것이 바로 사대매국에 환장한 리명박당의 본심이다. 보수패당의 친미사대행위야말로 조상들과 조금도 짝지지 않으며 훨씬 더 릉가하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친미역적의 무리를 청산하고 모든 불행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이 항시적인 위협을 받게 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장 윤 남

동족대결분자에게 철추를 내리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리명박괴뢰역도의 도전적인 반공화국대결망발을 규탄하여 26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리명박역도가 유럽을 행각하면서 《북핵포기》를 운운하고 함선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에 대한 《사과》를 지껄여댔는가 하면 과거 반공화국모략사건까지 거들며 그 무슨 《도발에 대한 응징》을 떠벌인데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공화국의 체제를 합부로 시비하면서 베를린장벽이 어쩌구저쩌구 하며 불순한 체제대결망상을 추구하는 얼빠진 악담들을 늘어놓았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이것은 신성한 공화국의 체제와 존엄에 대한 극악한 도발로서 온 겨레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실로 력대 괴뢰통치배치고 리명박역도처럼 친미사대와 동족적대감이 골수에 배기고 심술이 삐뚤어진 반통일대결광신자는 없다고 단죄하였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고 동족대결분자에게는 준엄한 철추를 내려야 한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온 민족이 북남공동선언들의 기치밑에 단결하여 친미사대, 반공화국대결을 미친듯이 추구하며 자주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친인공노할 반통일역적의 무리인 리명박패당을 력사의 무대에서 깨끗이 쓸어버려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성명은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공화국의 체제와 존엄을 모독하고 우롱하는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배격받는 국방개혁놀음

남조선괴뢰패당의 그 무슨 국방개혁놀음이 커다란 반대배격에 부딪치고있다.

2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성원들은 괴뢰국방부앞에서 당국이 내놓은 개혁안의 부당성을 까밝히며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17일에는 괴뢰해, 공군예비역장성들이 국방부의 개혁안설명회에 참가하기를 거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동자들에 대한 파쑈적폭거를 단죄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가 24일 론평을 발표하여 리명박독재《정권》의 폭력적인 로동자탄압책동을 규탄하였다.

론평은 이날 당국이 2500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업주측의 부당한 직장폐쇄조치에 맞서 파업을 벌리던 유성기업의 로동자 500여명을 련행하는 폭거를 감행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파쑈적폭력에 의해 로동자 10여명이 중상을 당하였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당국의 폭압에는 로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로동운동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탄압책동은 로동자대중의 더 큰 저항을 불러올것이라고 론평은 경고하였다.

론평은 전체 로동자들이 단결된 투쟁으로 당국의 독재통치에 완강히 맞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임금인상과 로조법전면재개정을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

저주의 과녁이 된 반역《정권》

만화를 통해 본 민심

온 남조선땅이 반《정부》함성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이러한 속에 최근 남조선출판물들에는 폭발적인 반《정부》민심을 반영한 만화들이 수많이 실리여 주목을 끌고있다.

그 대표적인 만화들을 보기로 하자.

《경향신문》에 실린 《모범답안…》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수입을 반대하는 초불시위때 청와대뒤산에 올라 뻐아프게 반성했다는 리명박역도를 《한나라당》대표라는자와 장관후보라는자가 그대로 따라하는 형상을 통하여 역적패당이 줴치는 《반성》이라는것은 정치적위기를 모면하고 민심을 우롱하기 위한 오그랑수에 불과하다는것을 신랄히 야유하고있다.

만화 《2인조 주의보!》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여있다.

흉물스러운 2명의 강도가 한 주민을 위협하는 장면이 만화에 그려져있다. 1명의 강도(리상득)가 주민(충청도민을 형상함)의 혁띠(과학기술연구지구)를 슬슬 풀어벗기고있을 때 다른 1명의 강도(리명박)가 권총(《대선》공약)을 꼬나들고 속는자가 바보라고 너덜거린다.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만화는 기만적인 《선거》공약을 내세워 집권한 후에는 그것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역도패당의 파렴치성과 악랄성을 만천하에 폭로하고있다.

만화들이 보여주는것처럼 리명박역도가 지난 《선거》때 늘어놓은 수많은 침발린 공약들은 순전히 민심을 기만하고 권력을 가로채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였다. 역적패당의 죄악으로 하여 지금 남조선의 정치적위기는 극도로 심화되고있으며 사회전체는 갈등과 혼란의 수렁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인민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있다.

《한겨레》에 실린 만화 《공짜 좋아하지 마》를 보자.

문학적재능이 남달리 뛰여나 장래가 기대되던 한 젊은 녀작가가 《창피하지만 남은 밥이랑 김치 좀 주세요—》하며 남의 집문앞에 굶어쓰러져가는데 보수패당은 동정은커녕 공짜를 좋아하지 말라고 떠벌여댄다.

위선적인 《친서민정치》나발을 입술에 침이 마르도록 불어대며 불쌍한 사람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보수패당의 파렴치성을 만화는 준렬히 규탄하고있다.

한편 외국의 대통령특사단을 초청해놓고 괴뢰정보원의 요원들을 동원하여 극비정보를 뽑아내려다가 발각되여 국제적망신을 당하는 리명박역도를 풍자조소한 만화 《초대해놓고 절도질이냐?》, 온 남조선땅이 구제역으로 초토화되여 인민들의 생활이 커다란 타격을 받는데도 아랑곳없이 정치적목적실현에만 눈이 빨개 돌아치는 리명박역도를 비난한 만화 《진짜 〈미운 오리〉》, 보수《정권》이 랍치되였던 선박구출작전의 성공을 요란스레 떠드는 방법으로 저들의 《치적》을 자랑하였지만 반《정부》감정을 돌려세울수 없다는것을 형상한 만화 《구출성공!》, 《민심가라앉히기》를 비롯하여 반역《정권》을 신랄히 비난하는 만화들이 련일 실리고있다.

이밖에도 만화 《MB(무능, 부패)정권》은 무능하기 그지없고 부패한 현《정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화산폭발직전에 이르렀다는것을 생동하게 형상하고있다.

인민을 등진자들치고 제 명을 다 산 례가 없다. 그런자들은 례외없이 인민의 저주와 규탄을 받았고 비참한 종말을 고하였다.

풍자만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리명박패당의 운명도 달리는 될수 없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향 미

북침전쟁을 꾀하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죽음뿐

침략전쟁기지화책동의 진의도

남조선괴뢰군부당국이 제주도 서귀포시의 강정마을에 새로운 해군기지공사놀음을 벌려놓고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이 해군기지건설이 완공될 경우 여기에는 괴뢰륙상지원전대와 공군람색부대를 비롯한 군종협동작전에 필요한 무력이 배치되며 괴뢰해군의 제7기동전단이 이 기지를 모항으로 리용하면서 그 무슨 《지원》과 해상교통로통제 등을 기본임무로 수행할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모략적인 《천안》호사건을 구실로 괴뢰당국이 우리 선박들의 제주해협통과를 가로막는 조치를 취한데 이어 괴뢰해군의 제7기동전단은 조선동서해와 태평양상에서 미제침략군과의 합동하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해상봉쇄연습과 해상사격훈련 등을 미친듯이 벌리며 돌아쳤다. 지난해 10월 부산앞바다에서 감행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관련 해상차단, 검색훈련과 추자도와 욕지도부근에서의 괴뢰해군의 해상기동훈련 등 제주도주변에서는 반공화국불장난소동들이 련이어 벌어졌다. 이것을 놓고도 남조선호전광들이 제주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는 리유가 반공화국해상봉쇄를 더욱 강화하고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려는데 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남조선당국이 제주도에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는 리유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보수당국은 제주해군기지를 미제의 아시아제패전략실현의 전초기지로 내맡기려 하고있다.

제주도가 평택과 인천, 군산, 광주를 련결하는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의 주요대상지의 하나로 점찍혀있고 제주도에 새로 건설되는 해군기지에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군함정들의 정박까지 예견되여있는 사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은 해외침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실현에서 제주도를 지리적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 그 어데로도 진출할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 보고있다. 하기에 미국은 《동맹》의 간판밑에 괴뢰들을 기지건설에로 내몰고있으며 괴뢰들 역시 이 기회에 상전을 등에 업고 공해상에로 작전반경을 넓힐수 있는 조건을 갖추려 하고있는것이다.

지금 미국내에서까지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해양제패를 위한 군사적발판으로서 동아시아나라들의 해상수입통로를 통제하여 이 나라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것이라는 여론이 울려나오고있으며 외신들도 기지건설로 인하여 더욱 높아지게 될 군사적긴장상태에 대하여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모든 사실은 온 겨레와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지향에는 아랑곳없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며 전쟁책동을 일삼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침략적정체를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제주도인민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침략전쟁의 전초기지로 내맡기려는 보수당국의 책동을 준렬히 단죄, 규탄하면서 공사를 지체없이 중단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우리 민족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인민들의 삶의 터전을 외세의 침략전쟁전략실현의 제물로 섬겨바치려는 남조선보수패당의 사대매국적행위를 절대로 용납치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현 철

《해군기지건설 당장 중지하라!》

지금 남조선 각지에서 제주도에 새로운 북침전쟁기지를 건설하려는 보수패당의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고있다.

이 해군기지건설놀음은 착공식을 선포한 첫날부터 그곳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제주도주민들은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등을 뭇고 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단체들까지 떨쳐나서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1만명 선언운동, 항의투쟁과 롱성투쟁을 벌리면서 해군기지건설에 비낀 호전광들의 반공화국침략기도와 그 위험성을 폭로규탄하고 해군기지건설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제주도주민들속에서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나오는데 질겁한 보수패당은 군부와 경찰병력까지 내몰아 투쟁장소들을 기습하고 야수적폭압을 가하였다.

지난 4월에는 공사중단을 요구하여 투쟁한 한 평화운동단체성원에게 구속령장을 발부하였으며 얼마전에는 파쑈경찰을 내몰아 제주해군기지건설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단체성원들과 주민 8명을 강제련행하는 파쑈적폭거를 저질렀다.

생존의 권리와 평화를 요구하는 남조선민심을 파쑈탄압으로 짓밟으면서 북침전쟁기지건설을 강행하는 남조선보수패당의 책동은 남조선 각계의 더 큰 항거에 부딪치고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가협 량심수후원회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집회, 성명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해군기지건설놀음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기어이 저지시킬 의지를 표명해나섰다.

얼마전 남조선의 6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군부호전광들의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진상조사단에 제출하였다.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 각계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이 강정마을 주민들이 기지건설을 원한다는 헛소문을 내돌리면서 해군기지건설을 강행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 해군기지를 미군도 리용하게 된다고 하면서 단체들은 제주도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긴장을 초래하는 위험지역으로 만드는 기지건설공사를 즉시 중지시킬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의 제주도당대표들은 지난 4월말 괴뢰해군기지사업단을 찾아가 군당국의 부당한 제주해군기지건설강행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있다고 하면서 군부와 경찰이 기지건설반대투쟁을 벌리고있는 주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을 걷어치울것을 주장하였으며 얼마전에는 제주해군기지《국회》진상조사단을 내오고 공사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해군기지건설 당장 중지하라!》라는 구호를 웨치며 항거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호전광, 사대매국노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의 폭발이며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반역도배들을 용서치 않을 굳센 의지의 발현이다.

본사기자

괴뢰역도의 대결망발을 규탄

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13일 반공화국대결적망발을 줴친 리명박역도를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리명박이 이번 해외행각기간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에 대한 그 누구의 《사과》를 력설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 사건들은 남조선집권세력의 조작극이라고 하면서 북에 그 책임을 넘겨씌우는것은 억지라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조선반도평화번영은 군사적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이룩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리명박이 지금이라도 민족을 위한 길에 나서야 할것이라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자위적국방력은 경제건설의 중요한 담보

올해초에 미국의 VOA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지난해 공개활동회수가 161회로 1998년이후 가장 활발했다. 지난해 부문별공개활동에서 경제부문이 63회로 가장 많았고 군이 38회, 외교등 대외부문이 12회 그리고 공연관람 등 기타가 48회였다.》

지난해 일본의 라지오프레스는 《2009년에 공장들에 대한 김정일령도자의 현지지도회수가 처음으로 군부대들에 대한 시찰회수를 릉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최근 남조선의 CBS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올해 1.4분기 모두 35차례의 공개활동을 한것으로 계산됐다. 〈통일부〉는 4월 20일 올해 1.4분기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공개활동을 분야별로 볼 때 경제분야시찰이 12차로 가장 많았다.》고 전하였다.

사실들은 적대세력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소식에 대하여 매우 관심하며 신경을 도사리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것은 적대세력들의 언론계가 경제부문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에 대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분석보도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밑에 우리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적위력이 날로 강화되고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는데 대해 적대세력이 커다란 불안감과 위구심에 휩싸여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높이 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데 기초하여 경제강국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신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이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정치강국, 군사강국으로 된 우리 나라가 가까운 기간에 경제강국건설목표를 점령할것이라는 외국의 벗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이다.

사실들은 적대세력이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강국건설투쟁을 놓고 불안에 떨고있지만 반제자주력량은 거기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고무를 받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건설에 평화보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은 량자가 밀접히 련관되여있기때문이다. 경제건설은 평화보장을 전제로 하며 그것은 위력한 국방력에 의해 담보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무력의 군사적담보가 없이는 평화적인 경제건설과 국가건설도 제대로 할수 없으며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현시기 진보적인민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혁명적기치이다.

위력한 국방력이 없으면 평화를 담보할수 없고 경제건설을 제대로 할수 없다. 강력한 군사적담보가 있어야 평화도 보장할수 있고 경제건설도 성과적으로 추진할수 있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환경에서 경제건설을 다그치자면 군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 국제사회에서는 군사를 중시하지 않고 경제건설일면에만 치중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 발전해야 다른 모든 분야가 발전할수 있다는 견해를 내세우고있다. 그러나 오늘의 복잡한 국제정세흐름을 고려할 때 문제를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된다.

국제사회의 현실과 시대적요구를 외면, 경시하면서 경제건설에만 치우치는것은 현시기 국제무대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사태들의 본질과 그 후과에 대해 똑바로 보려 하지 않는데로부터 출발한것이다. 물론 경제건설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적환경을 필요로 한다. 평화적환경을 담보하는것은 국방력이다. 평화가 보장되지 못하고 군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제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없다. 아무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막강한 물질기술적토대가 갖추어져있다고 하더라도 군사적힘이 약하면 제국주의자들의 먹이대상으로 되여 쉽사리 망하고만다. 이것은 력사의 교훈이며 진리이다.

지난 20년간에 제국주의자들이 벌린 침략전쟁들을 보자. 페르샤만전쟁과 발칸전쟁,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침략전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과 야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경제건설에만 치중하면서 국방건설을 소홀히 하면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도 평화도 지킬수 없으며 종당에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의 희생물로 되고만다는것을 보여준다.

국방건설에 힘을 넣어 나라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경제건설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평화도 수호할수 있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들은 국방건설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똑바로 보고 국방력강화를 중대한 국사로 내세우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국방력을 강화하여 평화를 보장하면서 경제건설을 다그치는것은 현시대의 추세이기도 하다.

오늘 이란,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이것은 새 세기에 들어와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마구 침해, 유린하면서 지배주의, 강권과 전횡을 일삼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응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우리 공화국은 적들의 북침전쟁책동에 대응하여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며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강위력한 국방력을 갖추고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위해 총진군하고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가고있다.

아시아의 한 잡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나라의 경제분야가 일떠서는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한 나라가 정치, 군사적으로 자주독립국가의 체모를 갖추기에는 수십년세월 혹은 그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경제분야를 추켜세우는것은 그리 힘든것이 아니다, 경제건설분야보다 정치, 군사분야를 일떠세우기가 더 힘들다라고 지적하였다.

잡지는 조선에는 경제건설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이미 마련되여있으므로 정치, 군사강국이 된 조선에서 경제강국을 건설하는것은 시간문제라고 전하였다.

오늘 제국주의나라들이 경제건설분야에서 우리 나라가 이룩하고있는 놀라운 성과들을 두고 몹시 배아파하며 속이 뒤틀려 비렬한 제재와 봉쇄책동으로 우리를 어째보려고 하는것은 부질없는짓이다.

지금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강위력한 국방력을 마련하시고 경제강국건설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대고조의 앞장에 서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와 위인상을 높이 격찬하고있다. 반면에 지배주의세력은 불안과 위압감에 휩싸여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국방력강화에 경제건설과 평화보장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깊이 깨닫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국방력을 튼튼히 갖추면 제국주의자들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한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높은 자주의식을 간직하고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여 평화를 보장하고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채 일 출

메히꼬정계인사 담화 발표

자주시대의 걸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7돐에 즈음하여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헤쑤스 안또니오 까를로스 에르난데스가 2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뜻깊은 6월 19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사상리론가이시다. 그이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조선로동당을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첫날부터 당이 주석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이룩함으로써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에서 사회주의집권당건설에서 나서는 사상리론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여 조선로동당이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위협과 도전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공화국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그이께서 집필하신 로작들은 사회주의정권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사상리론적문제들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군사를 앞세우고 군대를 주력으로 하여 전반적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사상과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 등은 조선을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군사강국으로 더욱 튼튼히 다질수 있게 한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조선인민을 사상과 신념이 강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근에도 여러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조선인민을 강성대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비범한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있는 조선인민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조선로동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면서 그이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

【조선중앙통신】

영원불멸할 중조친선

중국의 벗들이 강조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의 벗들은 조중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위원인 맹건주공안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조친선은 모택동주석, 주은래총리를 비롯한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과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해주신 재부이다. 이 친선관계는 호금도총서기동지와 김정일총비서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날로 강화발전되고있다.

중조친선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우리는 조선동지들과 함께 중조친선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진종흥은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린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중조 두 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중조친선은 피로써 맺어진것이다. 이것은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에게 있어서 공동의 재부로 된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중조친선은 불패의 힘을 가지고있다. 중국인민은 이것을 중시하고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앞으로도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강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다.

중국외교부 상무부부장 장지군은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중조친선관계는 두 나라 인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관계이다. 력사가 이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체류기간 우리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인민의 환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중국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친선의 정을 깊이 느끼였다.

중화전국총공회 부주석 장명기는 중조친선관계는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발전되여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조선전쟁시기 중국인민지원군은 항미원조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의 군대와 어깨겯고 싸워 승리하였다.

중조친선관계는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다. 우리는 이 관계를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야 한다.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사이에 피로써 맺어진 중조친선은 영원불멸할것이다.

반미시위, 항의집회

△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26일 미군주둔기한연장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거리에 떨쳐나와 미국기발을 짓밟고 반미구호들을 웨치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군의 주둔을 종식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베네수엘라의 까라까스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25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조치를 반대하는 항의집회들이 진행되였다.

미국이 이란과의 무역거래를 걸고들면서 베네수엘라의 국영원유회사에 제재를 가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벌어진 집회들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미국은 다른 나라에 제재를 가할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모두가 단결하여 미국의 부당한 처사에 대응할것을 호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뿔럭불가담운동의 역할을 높일것을 호소

인도네시아대통령 쑤씰로 밤방 유도요노가 25일 뿔럭불가담나라 외무상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운동의 역할을 높일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뿔럭불가담운동이 지난 반세기동안 보다 훌륭한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뿔럭불가담운동은 앞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 발전과 번영을 위해 자기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스라엘수상의 망발을 단죄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대변인이 24일 이스라엘수상의 망발을 단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수상이 미국회에서 이스라엘군을 1967년 중동전쟁이전의 경계선으로 철수시킬수 없다고 주장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중동지역의 평화과정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는 부당한 처사로 락인하였다.

그는 1967년 중동전쟁이전의 경계선에 기초하고 동부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팔레스티나독립국가가 창건될 때에만 지역의 평화가 이룩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과 서방의 제재책동을 배격

— 중국외교부 대변인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비난하였다.

최근 미국이 이란, 수리아 등 나라와 대량살륙무기와 미싸일제작에 리용될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거래를 진행하였다고 걸고들면서 중국의 3개 회사에 제재를 가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중국은 미국이 자기의 국내법에 근거하여 그러한 제재조치를 취하는것을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 이란국회 국가안전 및 대외정책위원회 위원장이 23일 한 통신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집요한 제재책동을 규탄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이 이란의 핵개발을 걸고들면서 이 나라의 한 국가은행에 새로운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란은 수십년동안 제재와 봉쇄를 받아왔지만 자기 발전의 길을 따라 꿋꿋이 전진하여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미국은 제재로 실지 손해를 볼것은 저들자신이라는것을 알아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집요한 제재책동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과 서방이 이란의 평화적핵개발을 문제시하면서 제재와 압력을 계속 가하려고 획책하고있는데 대해 까밝히고 핵에네르기개발은 나라의 합법적권리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의 핵개발은 철저히 평화적목적을 위한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현실

무역적자

일본에서 4월에 무역적자가 4 637억￥에 달하였다. 25일 이 나라 재무성이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이에 대해 밝혔다.

빈궁 악화

오스트랄리아의 퀸슬랜드주에서 많은 주민들이 빈궁에 시달리고있다.

24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현재 주에서 주민 10명중 1명이 극심한 빈궁속에서 생활하고있다고 밝혔다.

각종 범죄

뛰르끼예의 완주와 이즈미르주에서 25일 마약밀수행위들이 드러나 각각 565㎏, 92㎏의 하쉬쉬가 압수되고 10명의 범죄자들이 체포되였다.

같은 날 이스딴불시의 한 비행장에서 코카인이 적발, 몰수되고 2명의 마약관련 범죄자가 붙잡혔다.

한편 뛰르끼예의 악사레이주, 아다나주, 가지안떼쁘주에서 23일 마약밀수행위가 드러나 185㎏의 하쉬쉬가 압수되고 6명의 마약관련 범죄자가 체포되였다.

이보다 앞서 20일 오스트랄리아의 퀸슬랜드주에서 인터네트를 통해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색정범죄를 일삼던 21명의 범죄자가 붙잡혔다.

실업자수

프랑스에서 올해 4월말까지 실업자수가 267만명에 달하였다. 25일 이 나라 로동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사고

미국 시카고시의 남부지역에서 19일 자동차충돌사고로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보다 앞서 18일 캘리포니아주 남부지역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리륙하던 급유기에 갑자기 불이 달려 3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조선중앙통신】

세네갈에서 소금생산

월간국제정세개관

단합된 힘으로 평화와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인권옹호국》의 교활한 정체

미국은 해마다 주제넘은 《세계인권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약, 무기밀매 등을 걸고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을 시비하며 《인권옹호국》으로 자처하고있다. 그러나 세계최대의 마약소비국인 동시에 무기공급국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메히꼬의 심각한 마약범죄문제가 이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의 남부지역과 국경을 접하고있는 메히꼬에서는 지금 마약범죄집단들의 살인 및 폭력행위가 성행하여 커다란 사회적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4년동안에만도 마약범죄집단들의 만행으로 3만 5 000명이상의 무고한 메히꼬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범죄자들의 폭행을 피하여 다른 나라로 간 사람들의 수는 올해 3월현재 무려 23만명에 달하였다. 지난 2월에는 미국정부의 한 관리가 메히꼬 북부지역에서 마약범죄자들의 총에 맞아죽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고위관리들속에서는 메히꼬정부가 마약범죄를 통제할 능력이 없다느니, 미국이 메히꼬에 무장성원들을 보내여 마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괴이한 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미국의 오만하고 간섭적인 망발에 메히꼬정부는 자기 나라에서 마약범죄와 살인행위가 성행하게 된것은 바로 미국때문이라고 반박하였다.

메히꼬대통령 펠리뻬 깔데론이노호싸는 지난 3월 미국방문과정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메히꼬반마약당국이 최근 4년동안에 마약범죄집단들로부터 11만정의 무기와 1 000만발의 탄약을 압수하였는데 그중 적어도 85%가 미국으로부터 밀매된것이라고 까밝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정부관리를 쏜 총도 바로 미국 텍사스주의 한 도시에서 구입된것이라는것이 확인되였다. 자료에 의하면 메히꼬에서 마약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총들의 절대다수는 미국의 텍사스주와 아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무기상점들에서 팔아먹은것이라고 한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국정부가 메히꼬에로의 무기밀매범죄에 공공연히 개입하고있는것이다.

지난 3월 미국 AP통신과 중국의 신화통신이 전한데 의하면 마약밀매그루빠들의 무기구입경로를 조사한다고 하는 미국정부관리들이 도리여 마약범죄자들과 거래하는 무기장사군들에게 총기류들을 넘겨주는 놀음을 벌렸는데 그 량은 지난 2년동안 2 000정에 달하였다.

메히꼬국회는 미국정부의 이러한 행위를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불법무도한짓으로 락인하고 메히꼬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살인을 조장하는 미국의 처사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은 인권문제를 놓고 남을 재판할 도덕적권리가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부당한 《인권재판관》행세를 당장 걷어치워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오늘 인류는 평화를 열렬히 념원하고있으며 그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 하지만 지배주의세력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평화실현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우여곡절을 겪고있으며 그로 하여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산생되고있다. 이달의 국제정세흐름이 그것을 실증해준다.

이달에 중동지역정세가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다. 팔레스티나의 주요정치세력들인 파타호와 하마스가 화해에 관한 잠정합의를 이룩한데 이어 최종합의서를 채택하고 그 리행단계에 들어간것이다. 이로써 정치세력들의 분렬과 대립을 끝장내고 단합된 힘으로 독립국가를 창건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이 마련되게 되였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몹시 불안해하고있다. 팔레스티나정치세력들사이에 쐐기를 박고 어부지리를 얻자는것이 이스라엘의 속심이다. 그런데 일이 저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스라엘은 지금 볼이 부어가지고 속삐뚤어진 소리만을 늘어놓고있다. 역시 중동평화과정을 파괴하는 주범다운 행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부질없는짓이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고 국제적으로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건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날로 확대되고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을 더욱 난감한 처지에 몰아넣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팔레스티나를 독립국가로 인정하고있다. 그 수는 벌써 110여개에 이르렀다. 유럽동맹나라들도 이에 합세할 기미를 보이고있다. 이대로 나가는 경우 팔레스티나가 유엔에서 독립국가승인에 필요한 성원국투표수를 확보할수 있게 될것이다.

최근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반 아빠스는 독립국가창건에 있어서 유엔의 지지가 기본이라고 하면서 그에 자신심을 표시하였다. 외신들은 오는 9월에 열리게 될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티나가 독립국가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있다.

팔레스티나에서의 정세발전으로 하여 미국도 난처한 처지에 빠져들고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극구 비호두둔한것으로 하여 중동평화과정파괴의 공범자로 몰리우고있는 미국이다. 이런 미국이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이스라엘을 내놓고 지지했다가는 더 큰 국제적고립에 직면할수 있다. 이것을 우려한 미국은 중동평화실현에서 저들이 《주도적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주기로 결심한것 같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고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이전) 의 국경선을 기초로 하여 중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한것은 바로 그때문일것이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미행정부가 저들에게 비우호적인 립장을 취하고있다느니, 미국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잘 리해하지 못하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앙탈을 부리면서 불에 덴 송아지마냥 놀아대고있다. 최근 이스라엘수상은 자기들이 1967년의 국경선에로 되돌아갈수 없으며 팔레스티나령토에서 절대로 무력을 철수시키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팔레스티나를 비롯한 아랍나라들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냈다.

저들이 중동지배전략실현의 하수인으로 삼고있는 이스라엘이 자칫하다가는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을수 있다고 여긴 미국은 태도를 바꾸어 사태수습에 나섰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안전에 대한 저들의 공약은 확고부동하다느니, 이스라엘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팔레스티나의 노력은 실패할것이라느니, 올해 9월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을 배격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든것은 미국의 량면주의적수법을 잘 보여준다.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건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는 중동평화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혼란을 가져오고있다. 미국의 입김에서 힘을 얻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더욱 무모하게 나올것은 의심할바 없다. 이에 대해 벌써부터 세상사람들이 우려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아도 나크바의 날 (대참사의 날) 을 계기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여 시위투쟁에 떨쳐나선 팔레스티나인들을 이스라엘군이 무차별적으로 탄압하여 수많은 사상자들을 냈다. 이스라엘은 동부꾸드스에 있는 2개의 유태인정착촌에 약 1 500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하는것을 승인하였다. 이것은 중동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독립국가창건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들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된다.

공정한 여론이 이스라엘의 반팔레스티나행위와 그들을 비호두둔하는 미국의 온당치 못한 처사를 비난배격하였다.

한편 이달에 협조와 교류를 통하여 공동의 발전과 지역적단합,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였다. 지난 8일 인도네시아의 쟈까르따에서 제18차 아세안수뇌자회의가 페막되였다. 이를 계기로 지역적단합과 협조,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하려는 아세안성원국들의 의지가 과시되였다. 성원국들은 2015년까지 아세안공동체창설, 지역 및 국제문제해결에서의 아세안의 지위와 역할강화, 지역적통합을 위한 대책, 인신매매방지 등 문제들에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역내 협조기구들을 통하여 지역적통합과 안정을 실현하려는 성원국들의 립장을 보여주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세안은 자기의 발언권과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속에서는 무역활동의 많은 몫을 발전도상에 있는 경제지역들에 할당하는 등 남남경제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지난 5일 아프리카문제를 토의하는 한 회의에서 인디아상공업상은 지금 명백한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그것은 단순한 세계경제장성이나 생산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균형변화가 이루어지고있는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년간에 남남무역 및 투자는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세계무역량에서 남남 (발전도상나라들) 이 차지하는 몫은 1990년의 7%에서 2009년에 17%로 늘어났다.

중국, 브라질, 로씨야, 인디아, 남아프리카를 망라하고있는 《브릭스》와 아프리카대륙사이의 무역관계는 남남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고리로 되고있으며 그것은 새로운 세계무역균형을 형성할것으로 예견된다.

지난 18일 중국에서 《브릭스》동반자도시들인 중국의 청도와 브라질의 리오 데 쟈네이로, 로씨야의 싼크뜨—뻬쩨르부르그, 인디아의 뭄바이의 시장 또는 시장대표들이 장래협조 및 공동발전을 추동할데 관한 《청도발기》에 조인하였다.

상해협조기구 성원국들사이의 호상협조움직임도 적극화되고있다. 최근에 진행된 상해협조기구 성원국 군대총참모장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10년간 방위 및 안전분야에서 성원국들사이의 협조정형을 총화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협조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안전분야에서 기구성원국들사이의 호상협조가 밀접해지고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중국과 끼르기즈스딴, 따쥐끼스딴이 법집행안전기관들의 합동반테로연습을 진행하였다.

상해협조기구 성원국들사이에 경제적협조의 일환으로 원유, 젖제품, 고기수출완화조치 등이 취해지고있다.

전문가들은 지역기구들속에서 날로 활발해지는 협조움직임들을 단순한 실무적문제로가 아니라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에 대항하는 현시대의 추세의 반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단결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패한다는것은 력사의 진리이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단결하여 투쟁할 때만이 제국주의, 지배주의세력의 반자주, 반평화적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할수 있으며 사회적진보와 자주적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이달의 국제정세흐름의 주되는 총화이다.

본사기자 조 택 범

ㄱ-111014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